

김 대환

Dahwan Ghim

Selected Works
2017-2024

dahwan.ghim@gmail.com

목차

예언대회상

분신사마는 일기를 삼분지계한다

쉬운 길

잘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의 친구

양말이피티

전설 보기 컬렉션

안녕 휴먼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쉿, 원근법인 나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

A.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개걸음 보기

만두

수제비2

List

Prediction vs Recollection

The Great Clone Plans to Divide the Diary into Three Parts

Easy Way

A Friend Who's Got It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Yang-Mal-E-P-T

Legendary Collection

Hello Human

Wash3's Face vs Scaling

Shhh, I'm Perspective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of a Friend Who Exhibit

Smiley P.P. With A. Afarensis

Watching 'Fucking Walk Hard'

Mandoo

Sujebi2

예언대회상

Prediction vs Recollection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together)(together), 서울
2024.10.11.-10.29.

예언

한 바닥 정도 적는다. 흔히 그러하니. 빈 곳에 어두운 색 얼룩을 올려 빛을 거고, 가급적 도움을 청한다. 번역은 저마다 좋을 대로 했으면 한다. 어설프고 부정확한 것이 낫다. 예상 해볼 수 있는 질문에는 수줍은 척한다. 더 물어오면, 해가 지고 뜨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우에서 좌로 단번에 휘갈겼다고 답하자. 나머지는 짚은 발에게 묻자. 너무 다른 발에게는 정중히 더 큰 보답을 기약하자. 다음 중 알맞은 것은.

가영 : 나머지 공부를 하는 8살 짜리가, 보일리가 없는데 보인다. 짚은 감정을 부르는 얼룩을 모아 기분에 맞게 조립한 것을 기억에 얹어 두었고 그 모양을 종종 떠올린다. 뿌듯하다. 참으로 근사하다. 참으로 거짓이므로 거짓은 아니다. 그렇게 답한다.

나영 : 개는 글씨를 쓰는 게 느려서 거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달리기가 빨라서 토끼 이야기를 좋아한다. 토끼띠라서 그렇다. 물방개는 던지는 족족 버스비를 날렸고, 쥐띠는 거저 먹었다 한다. 보이고 들리고 닿는 게 많다. 앉으면 워든 쥐고 짚고 던져대서 혼이 난다. 그래서 달리면 다들 달리더라. 버티거나 일찍 가거나 하다 보면, 돌아 보거나 미리 보거나 할 수 있다. 이건 비밀.

다영 : 학우들의 글쓰기를 따라 잡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네모 칸에 맞추어 짓는 정성을 포기하고, 분할과 균형의 즐거움을 외면하고, 필압과 증거를 배신하고, 땀과 흙연으로 영망이 된 손으로 젖은 종이를 힘껏 그어 찢는 성의를 보이면 심사자는 포기로 화답해주었다. (중략) 희미리가 가득한 심사자는 스스로 복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보인다.

아침부터 크게 다툰 날이었다. 편식을 한다던 지 비타민을 제때 먹지 않았던 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유였다. 그 탓에 예정보다 급히 나와버렸다. 취향에 꼭 들어 맞는 날씨마저 괜히 미운 날이었다. 평소 대중 교통을 애용하는 편이다. 이 도시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이나 좁은 길이 늘 반절 뿐이다.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간 저것이 자동차인지 커플인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모를 거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동 시간까지 개인 공간을 누리고자 한다는 건 과분한 일이다.

전시장은 어김없이 언덕 위에 있었다. 그래도 반가운 풍경이 많아서 오르는지도 모르고 도착했다. 문을 열면, 총과 총 사이에 내 머리가 있었다. 어깨 근처에 뭔가 복잡한 드로잉이 붙어있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다만 계단을 내려갈수록 어깨에서 머리, 머리에서 위층으로 멀어지던 게 생각난다. 그러고는, 흰 바닥이 몇 개 있었고. 붉은 빛이 도는 나무 바닥과 벽이 인상 깊었던 탓에 더욱 도드라졌다. 몇몇 벽은 늘 그렇듯 흰 색이었으니 납득 가능한 선택이라 생각했고, 밟는 바닥은 아니라는 것이겠지 생각했다. 곳곳에 웅덩이가 있었고, 불투명한 초 같은 것이 절반쯤 채우고 있었다. 심지가 무척 길어서 몇몇 개는 다른 웅덩이와 이어져 있었다. 옆으로는 연두색 지우개밥 같은 게 있었나. 발톱이었나. 파인 흔적 같았는데 실제 자국은 아닌 듯 했고, 그런 듯 둥뚝한 느낌이었다. 한 켠에선 뭔가 내려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구르는 금속음도 들렸다. 종이 두어장을 챙기며 이름도 적었다. 전시의 제목처럼 예언이라며 시작하는 글이었지만 회상하는 글로 보였다. 글에는 작업자가 남긴 이른바 작가의 말이라 는 파트도 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떠올려보자면, 아래와 같다.

"학창 시절 사물연구라는 수업이 있었고, 학기 내내 방을 몇 알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대체로 반짝이고 소리가 나는 이것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땅데구르르르 (video, 3'29", 2012)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수업 발표를 위해 강의실 한 켠에 이런 저런 설치를 해 두었는데, 순서를 기다리던 중, 청소를 하시는 분께서 모조리 치워 버리셨어요.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빈 바닥 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마찰 없이 속 빈 소리만 잔뜩 뺐어 내는 수 밖에 없었어요. (중략) 네 맞아요. 방을이라 부를 만한 바닥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걸음을 빌어 바닥을 타격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조형의 탄력을 흥미롭게 여겼어요. (중략) 아뇨.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관람의 장소인 만큼 시각 우선적인 관계를 생각했어요. 이미지에서 타격감을 끌어내는 경험을 여럿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동선의 흔적을 표현 할 때에도 명징한 단서라 하기 보단 어눌한 그리기로, 견고한 탄성보단 충분히 파손을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마감을 추구했어요. 이러한 전시에서는 적당히 어설픈 마감도 허락해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중략) 주술에 대한 관심은 늘 깊었죠. 침을 뺐어 길을 찾거나, 어울리는 것들끼리 이어댄다거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수제비를 던지고, 바위에 동전이나 숟가락을 붙인다거나, 물방개나 햄스터 같은 사물취급의 너석들에게 생사를 배팅하는 경험이 꽤나 있거든요. (마침 달랑이는 소리가 들린다) (중략) 드로잉은 이번 전시의 메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번 작업 방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추적하기에 무척 번거로울 만큼의 도약을 거쳐 도출된 모양을 토대로 드로잉을 제작합니다. 이때, 망각이나 오해, 실수 등 자신의 신체가 감당 가능한 규모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스타일의 값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 드로잉을 캐스팅합니다. 일종의 아주 낮은 고부조이자 저부조인 판을 엎어내면 이와 비슷한 두께의 (벽으로부터) 좌대를 짓고 결합합니다. 마감을 위해 광택, 오류,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여 마무리합니다. (중략) 아, 실은 오늘 말씀 드린 건 대체로 거짓이고 그 반대이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와 같다.

구덩이로 기우뚱한 바닥을 피해 한 층 반 정도를 올라갔고, 내려다봤다. 열은 성취감 외에는 별다를 게 없었다. 머리맡에 있던 부조판을 조금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 정도. 흰 바닥이 애초에 조금 더 컸을 수도 있겠다는 단서 정도. 이곳이 아닌 어딘가의 바닥이었거나 벽이었거나 천장이었거나 손톱, 걸칠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납득이 가능한 것들을 고르는 취향을 비난하며 이것저것 잘라보다가, 자국이 남는 일에 과분한 책임이 달려드는 흔한 기억을 떠올리는 바람에, 여기 화면에도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불였다 떼었다 한다. 다음.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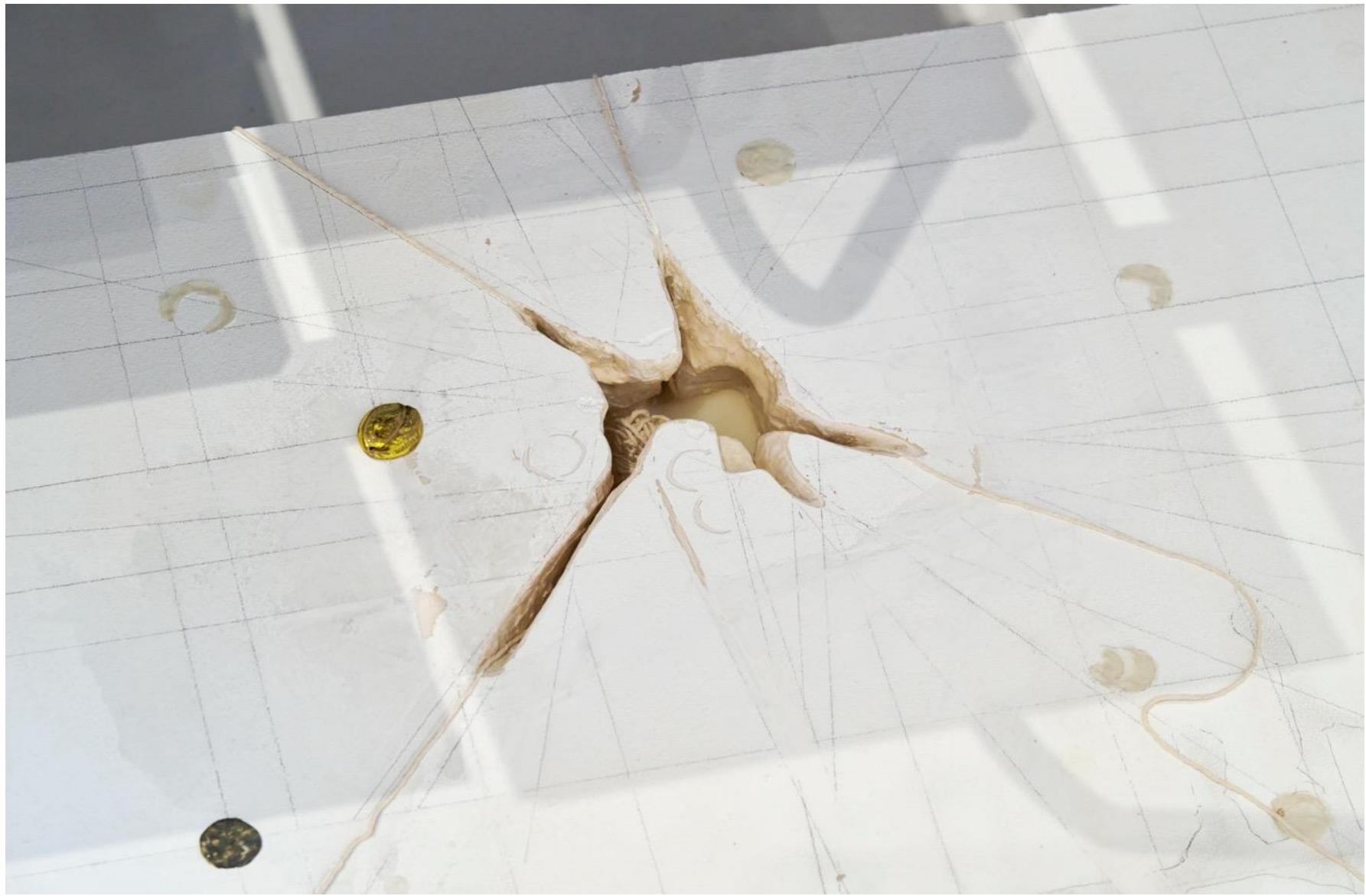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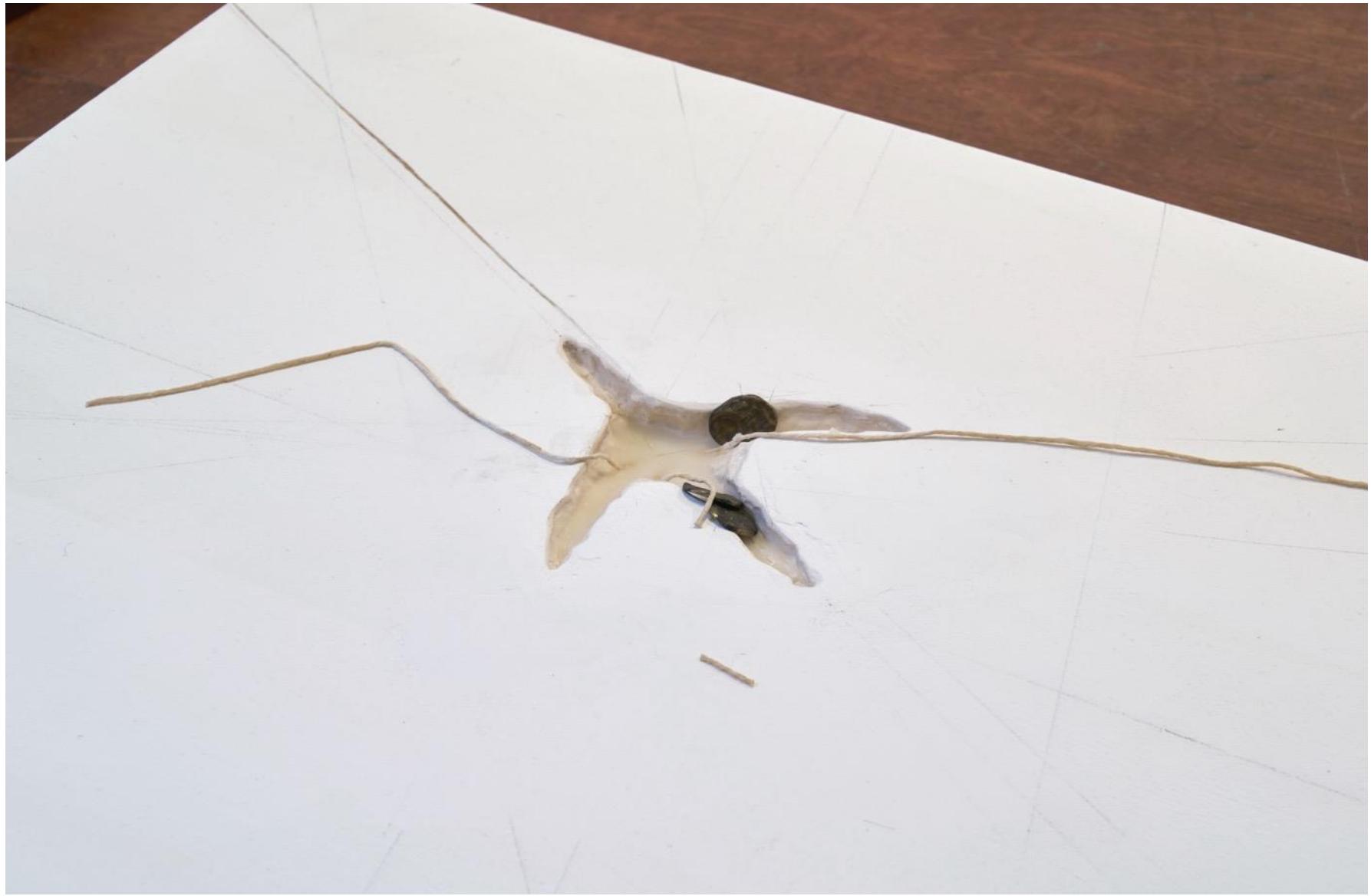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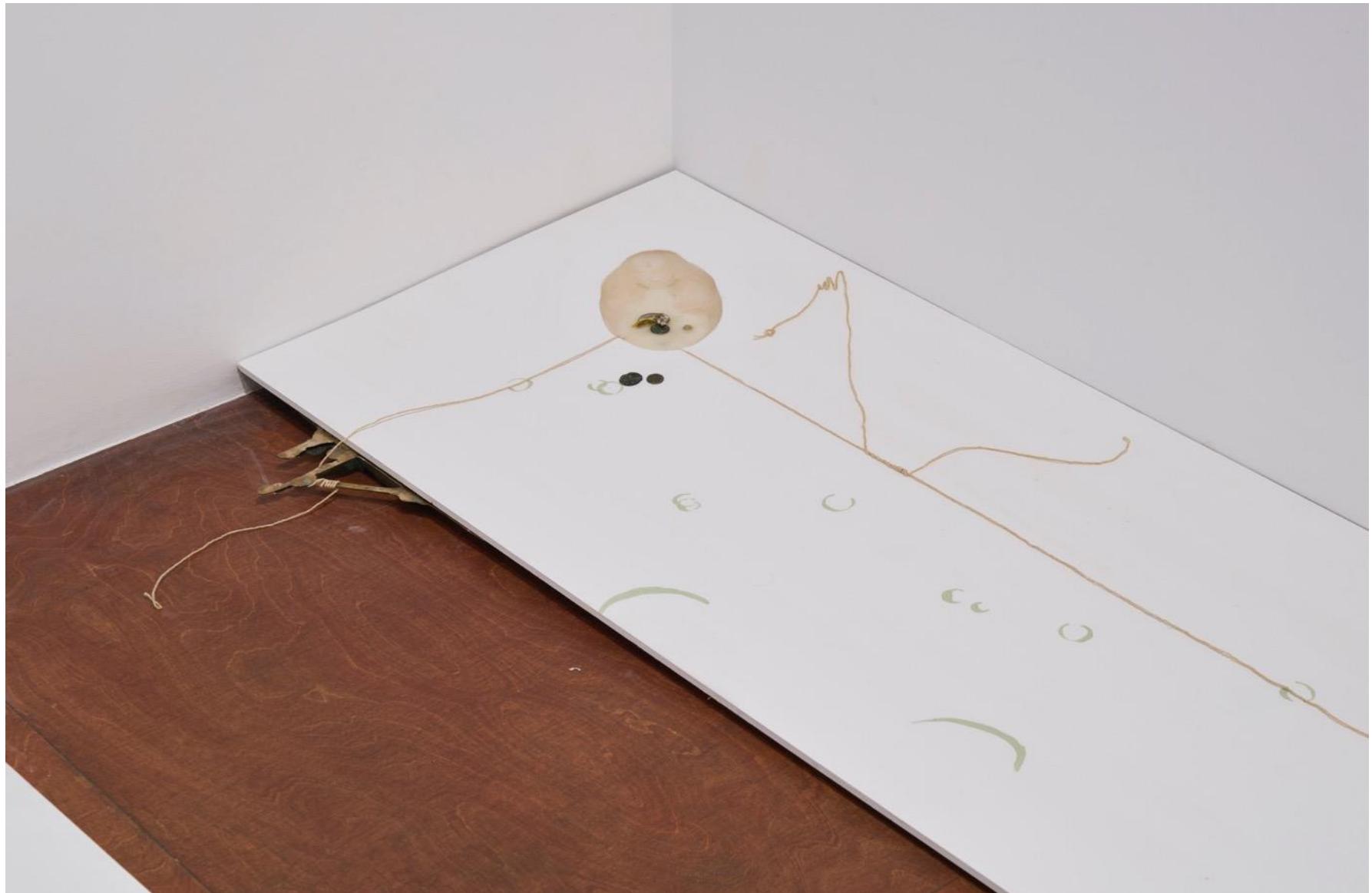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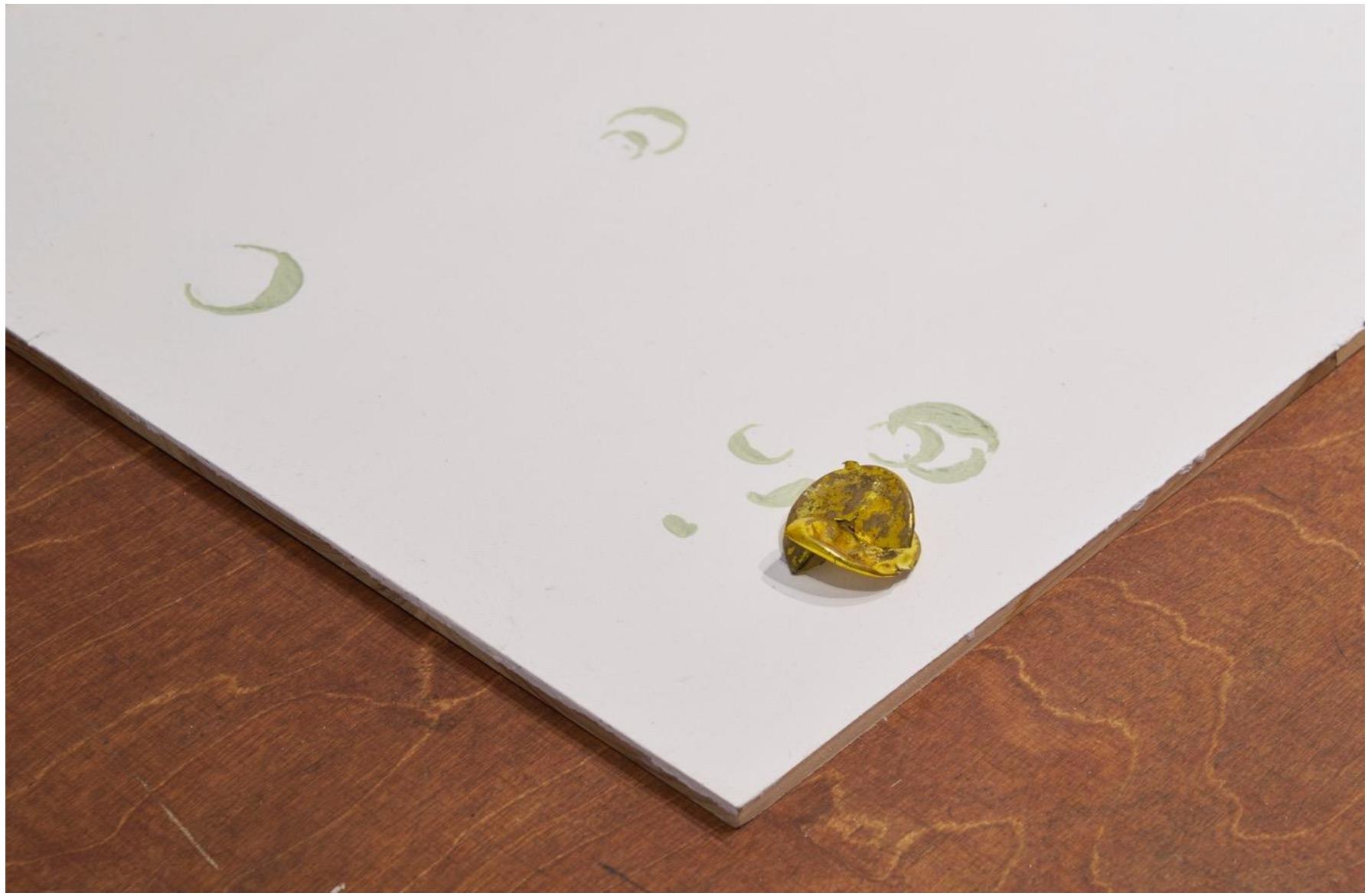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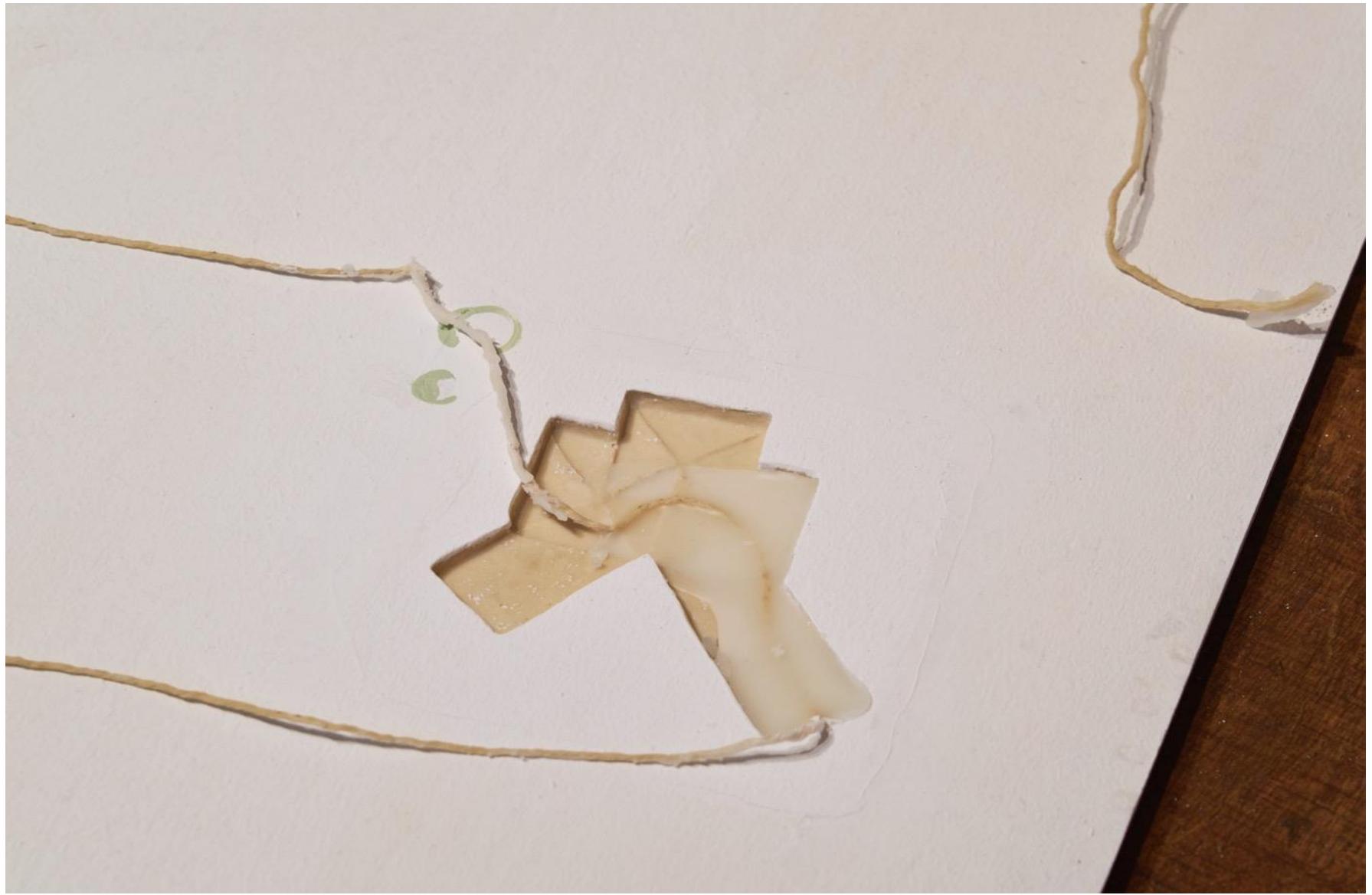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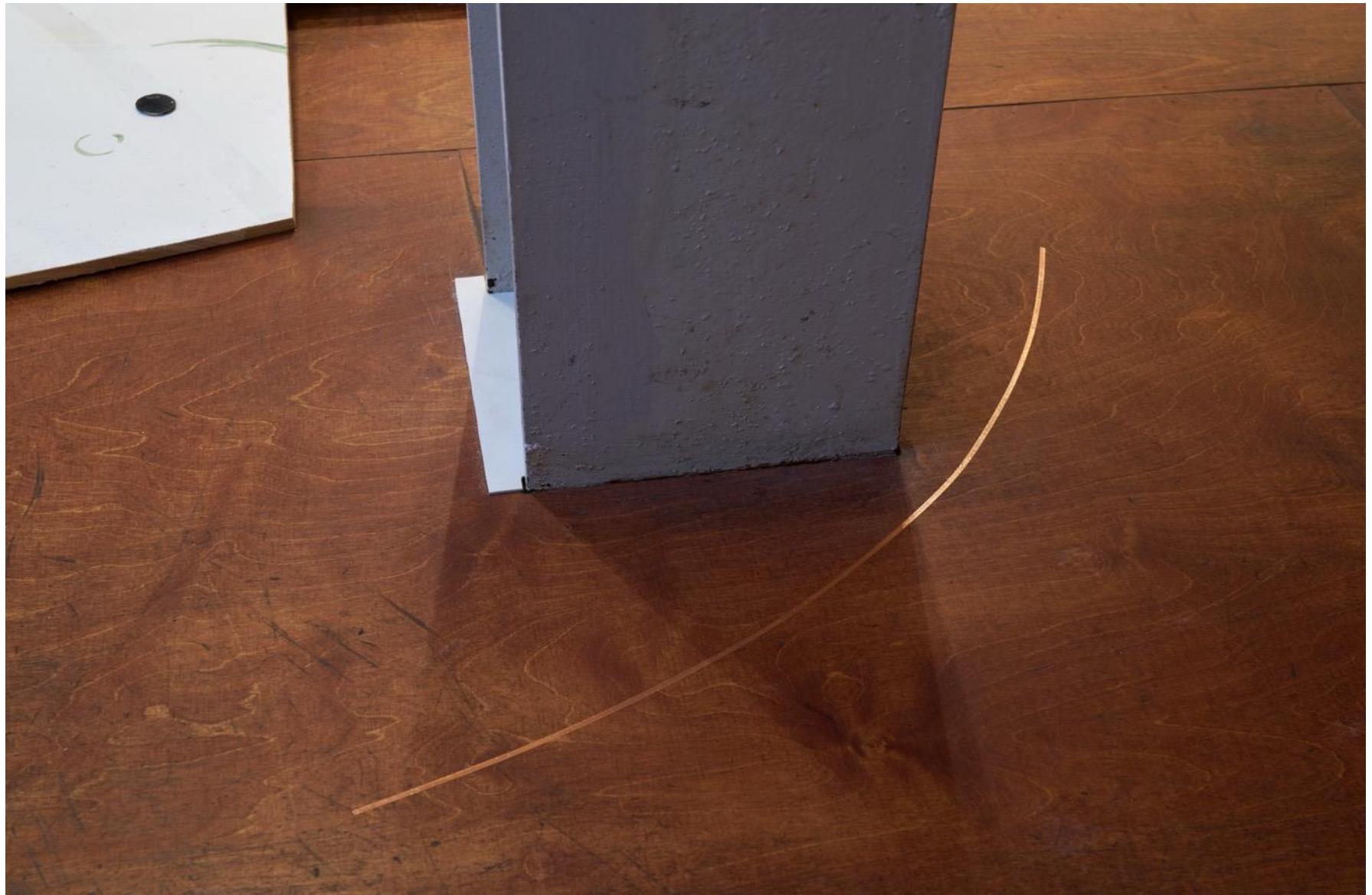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땅데구르르

비디오, 3'29", 2012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투게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dang-de-gu-rrr

Video, 3'29", 2012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방울이의 거짓된 바닥의 던지는 손 셋과 친구의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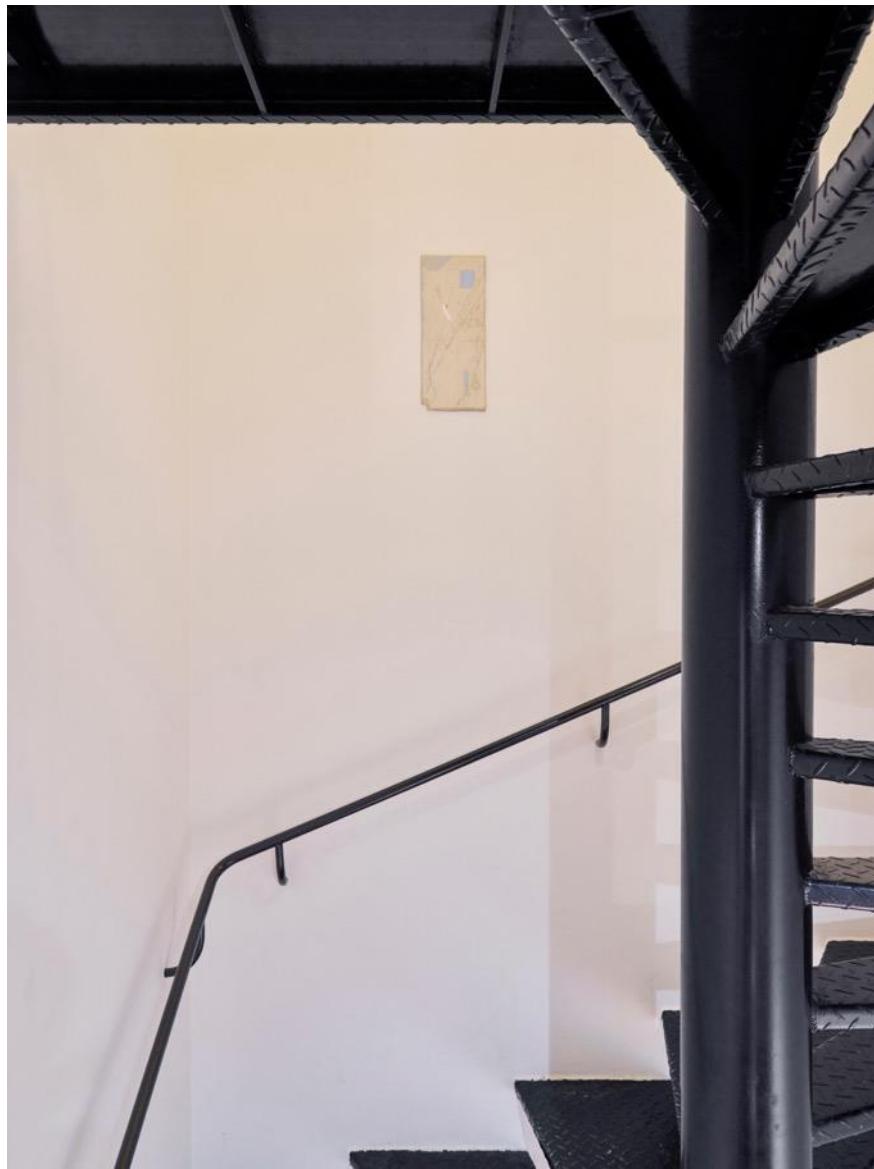
큰 손 3개와 강아지 귀 하나를 덮는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흑연,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Three throwing Hands and My friend's Ear of Bell's False floor

Size to cover Three Big hand and one dog's ear, Jesmonite, Clay, Wax, Charcoal,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깨끗한 손

손 두개를 넣을 수 있는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잉크, 흑연, 석고,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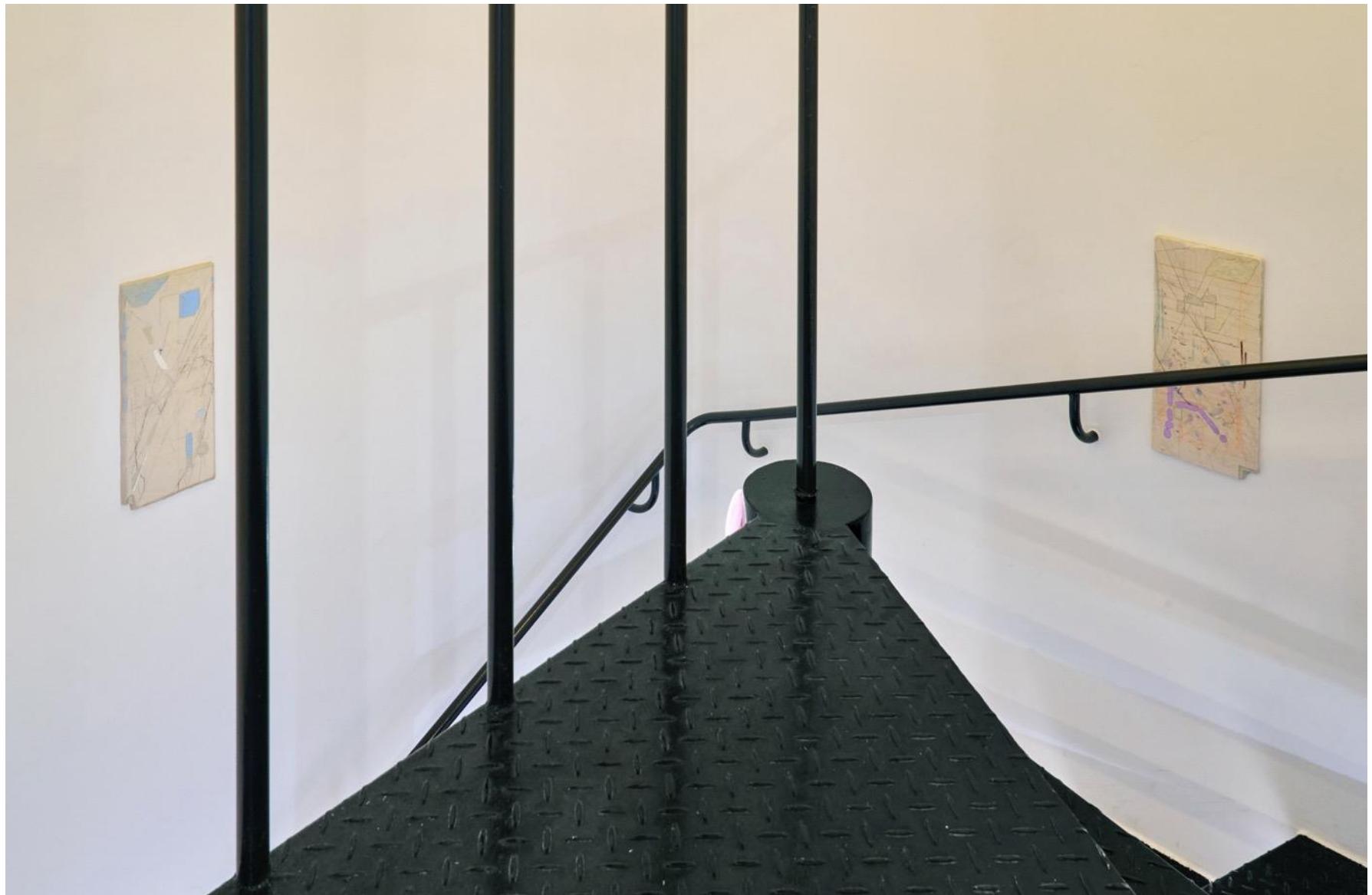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투게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Clean Hand

Size to put two hands on it, Jesmonite, Clay, Ink, Charcoal, Gypsum, 2023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깨끗한 손, 다음 손

손 두 개를 얹을 수 있는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잉크, 흑연, 석고, 등, 2023,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Clean hand, Next hand

Size to put two hands on it, Jesmonite, Clay, Ink, Charcoal, Gypsum, Copper, 2023,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다음 손, 더러운 피트

손 두 개를 얹을 수 있는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잉크, 흑연, 석고, 등,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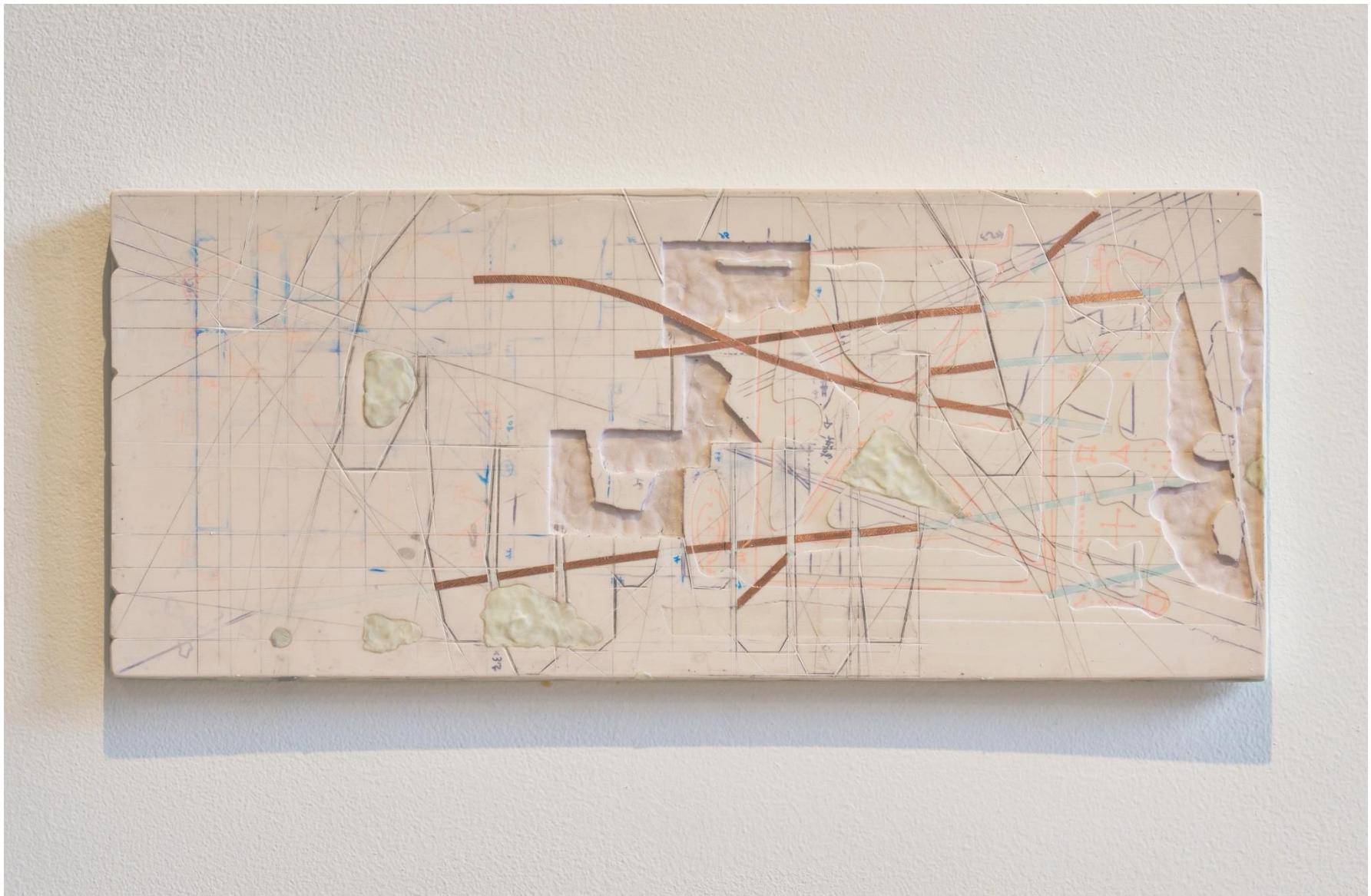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Next hand, Dirty Feet

Size to put two hands on it, Jesmonite, Clay, Ink, Charcoal, Gypsum, Copper,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 양 양 손

손 네 개를 얹을 수 있는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잉크, 흑연, 석고, 등,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별전시회,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 Four Hands

Size to put four hands on it, Jesmonite, Clay, Ink, Charcoal, Gypsum, Copper,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예언대회상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제스모나이트, 점토, 왁스, 잉크, 실, 나무, 금속, 석고, 2024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예언대회상」 특제더투게더, 서울, 2024.10.11.-10.29.

Prediction vs Recollection

Smaller or larger than a Floor. or Fit size, Jesmonite, Clay, Wax, Ink, Thread, Wood, Metal, Gypsum, 2024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Oct. 11.- 29. 2024.

쉬운 길

Easy Way

김 대환 개인전 「쉬운 길」
413BETA, 서울
2023.10.20.-11.05.

쉬운 글 1-3-0

안녕, 날이 많이 쌀쌀 해졌지. 걸웃을 챙겨야 하는 계절이야.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계절이 크게 변하는 때가 오면, 튼튼한 몸과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껴. 대체로 몇몇 슬픔은 꾸준한 산책으로 짚어질 수 있지. 오래 걸어야 한다면, 역시 하체 힘이 중요해.

햇빛을 따라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더라. 비타민을 합성하는 일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하던데, 곁에 좋은 친구를 둘수록 든든한 마음이 피어나는 것과 비슷한 걸까. 몸, 밝은 곳에서 작은 도깨비들이 힘껏 비타민을 합성하고 세로토닌을 응원하는 상상을 하면 즐거워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이는 것들만큼 좋아해.

쉬운 길 | 김 대환 개인전 | 기간 : 2023년 10월 20일 - 11월 5일 | 장소/주관 : 413BETA

한 친구의 눈과 귀가 부쩍 어두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일찌감치 발 밑을 신경 써 온 덕분인지 무릎은 멀쩡하다 하던데, 그렇게나 예뻐했던 눈과 귀가 먼저 멀어질 줄은 나도 그도 몰랐어. 되묻자면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간 모르는 것으로 두었어. 언제든 슬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종이접기 서클을 만든 적도 있는 걸. 자신 있게 접을 수 있는 꽃과 동물이 몇 종류나 있지.

접기 | 변하는 크기, 많은 재료, -2023

양말의 사본 | 강아지 크기, 석고나 종이나 청동이나 돌 중, 2023
양말의 사본의 사본 | 강아지 크기의 사본, 석고나 종이나 청동이나 돌 중, 2023

다만, 저마다 멀어지는 이들을 원근 다루듯 해도 괜찮은 걸까. 언젠가 보았던 수박 그림처럼 이따금 돌아보는 정도로 충분한 걸까. 서로 호소하지 않아도 좋은 안전한 그림을 곁에 두고, 자릿세를 겸하는 다과를 평하며 그 만큼의 안도감을 누리고, 마냥 해가 누워 가는 걸 지켜보는 일로 간편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걸까. 그렇게 등과 무릎을 먼저 떠나보내도 되는 걸까.

유독 곱던 그 친구의 코는 이미 멀어진 눈과 귀를 따라 달리는 탓에 빨갛게 변해버렸지만, 어느 수풀과 이불 맡을 부벼 왔는지 내내 읊어낼 수도 있을 만큼 거짓이 없이 얼룩져 있어. 그게 멋져 보여서 나도 닮은 얼룩을 코나 혀나 손바닥에서 찾아보곤 했어.

휠 | 5미터 지름의 원 그리고 사분의 일에서 사분의 일, 나무, 아크릴퍼티, 카페인트, 2023

정말이지. 최근, 몸에 상처가 생겨도 금방 낫질 않는 걸 느껴. 충분한 잠과 운동이 없으면 꼭 탈이 나고, 식사량도 줄었어. 이러다 환절기마다 앓아눕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건 아닐까 겁이나더라. 사용할 수 있는 몸의 총량을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 덕분에 나와 부쩍 친해졌어. 자주 묻고, 응원하고. 예전에도 알지, 세수를 하는 일이나 산책을 하고 퍼즐을 푸는 걸 즐거워했지. 만족스러운 외곽을 그리고 책임을 확인하는 일은 참으로 보람찬 기분이 드니까.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있다면 몇 가지 사연으로 빛어 소개 해볼 수도 있겠고. 만족스러운 자기소개였다면 이 또한 좋은 사연이 되어서 다음 소개 시간에 써 먹어볼 수도 있겠고.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어? 검진은 받아봤어? 유전자 검사는? 시술이나 수술은 잘 됐어? 이제 많이 추슬렀고? 하루를 삼등분해서 그 중 한 조각은 먹고 한 조각은 쉬고 한 조각으로 벌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일이 맞지.

깨끗한 손 | 한 뼘에 반 뼘 더 x 사분의 세 뼘 x 새끼손톱을 눌어서, 제스모나이트, 푸른 점토과 야광 점토, 2023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듣고 싶었는데, 바꿔 먹을 이야기를 늘어 둔다는 것이 길어지고 말았네. 정작 전시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고. 잘 알고 있겠지만, 언덕 만들어 두는 걸 참 좋아하지. 심술궂거나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언덕을 만들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언덕 마저 없다면 그간 만든 것들은 너무 쉬운 것들이거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어설픈 고민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번에도 좋고 다음 기회가 되어도 좋아. 테이블은 다시 또 마련 해야겠지만. 그때는 더 멋진 때와 장소로 잡자. 더 더 근사한 마음과 농담과 얼굴 균육을 준비해 갈게. 고마워.



쉬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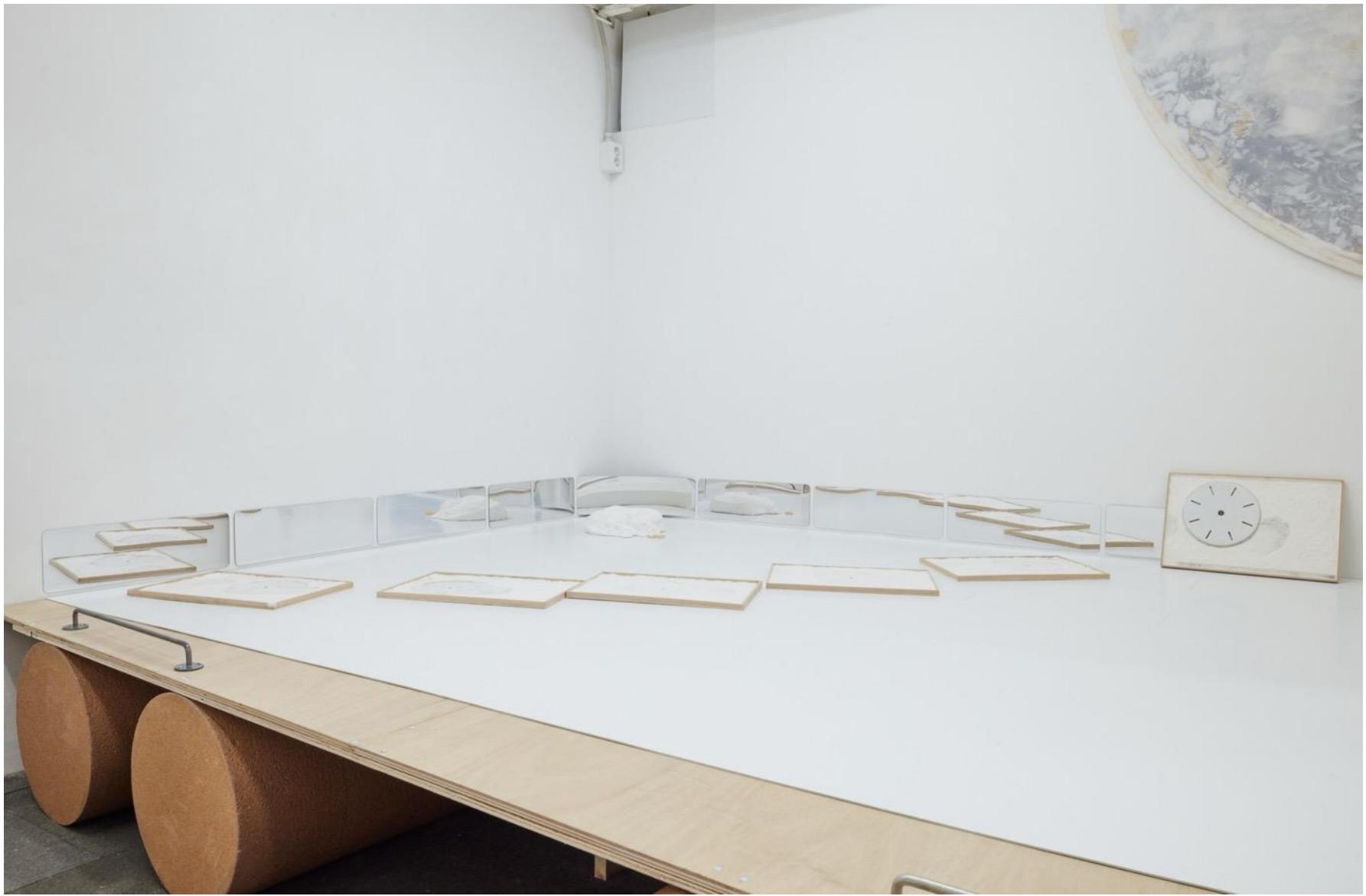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쉬운 길」 413BETA, 서울, 2023.10.20.-11.05.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Easy Way」 413BETA, Seoul, Oct. 20.- Nov. 14. 2023.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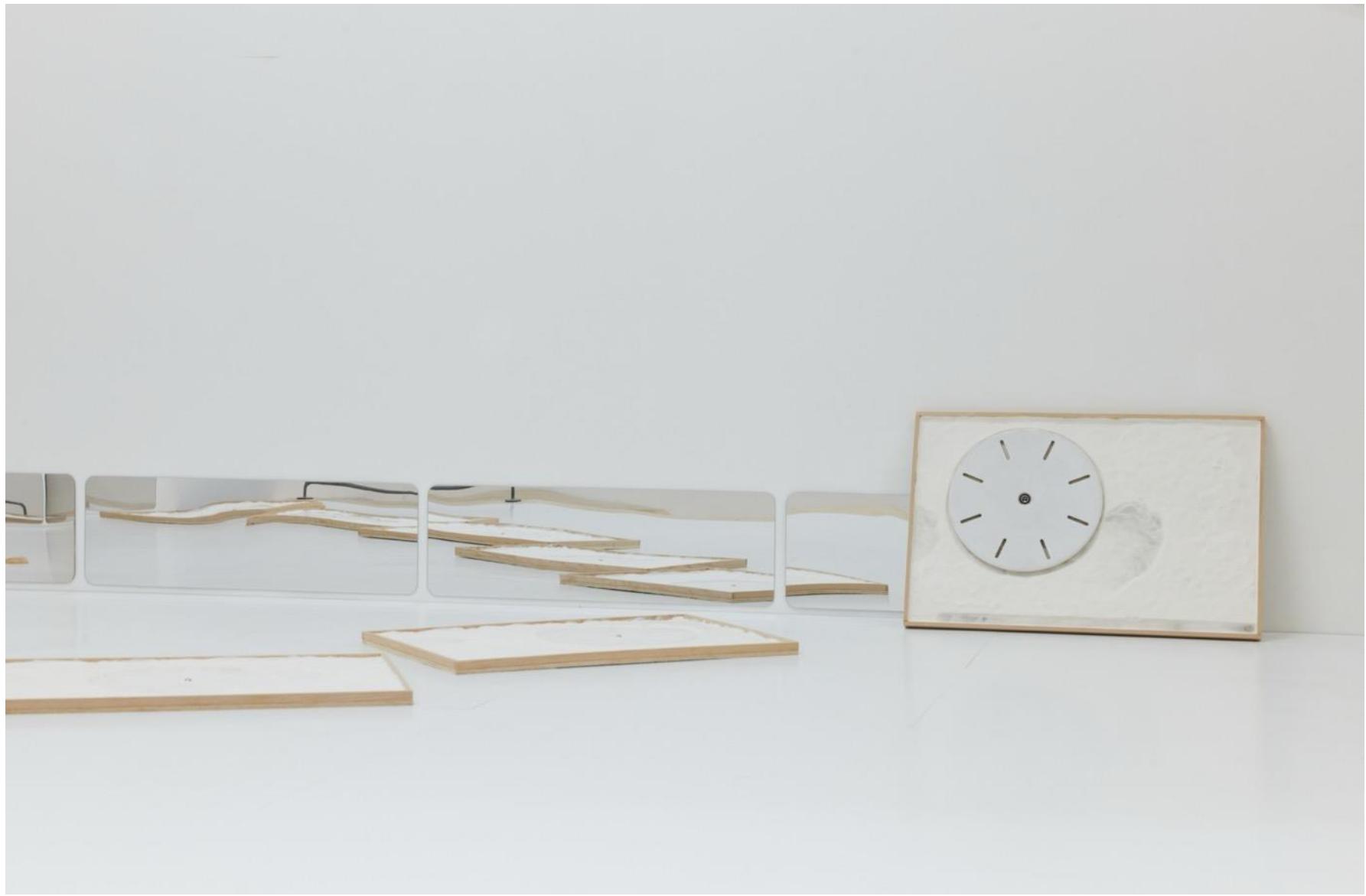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친구의 사본

나의 친구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거울, 석고, 2023



Copy of a Dear Friend

Smaller or larger than a friend of mine, Clay, Wood Mirror, Gypsum,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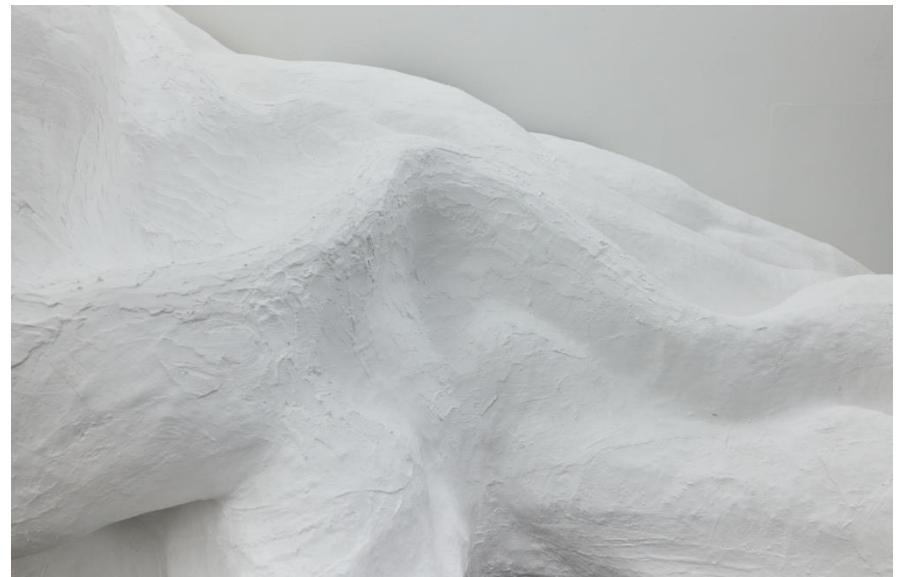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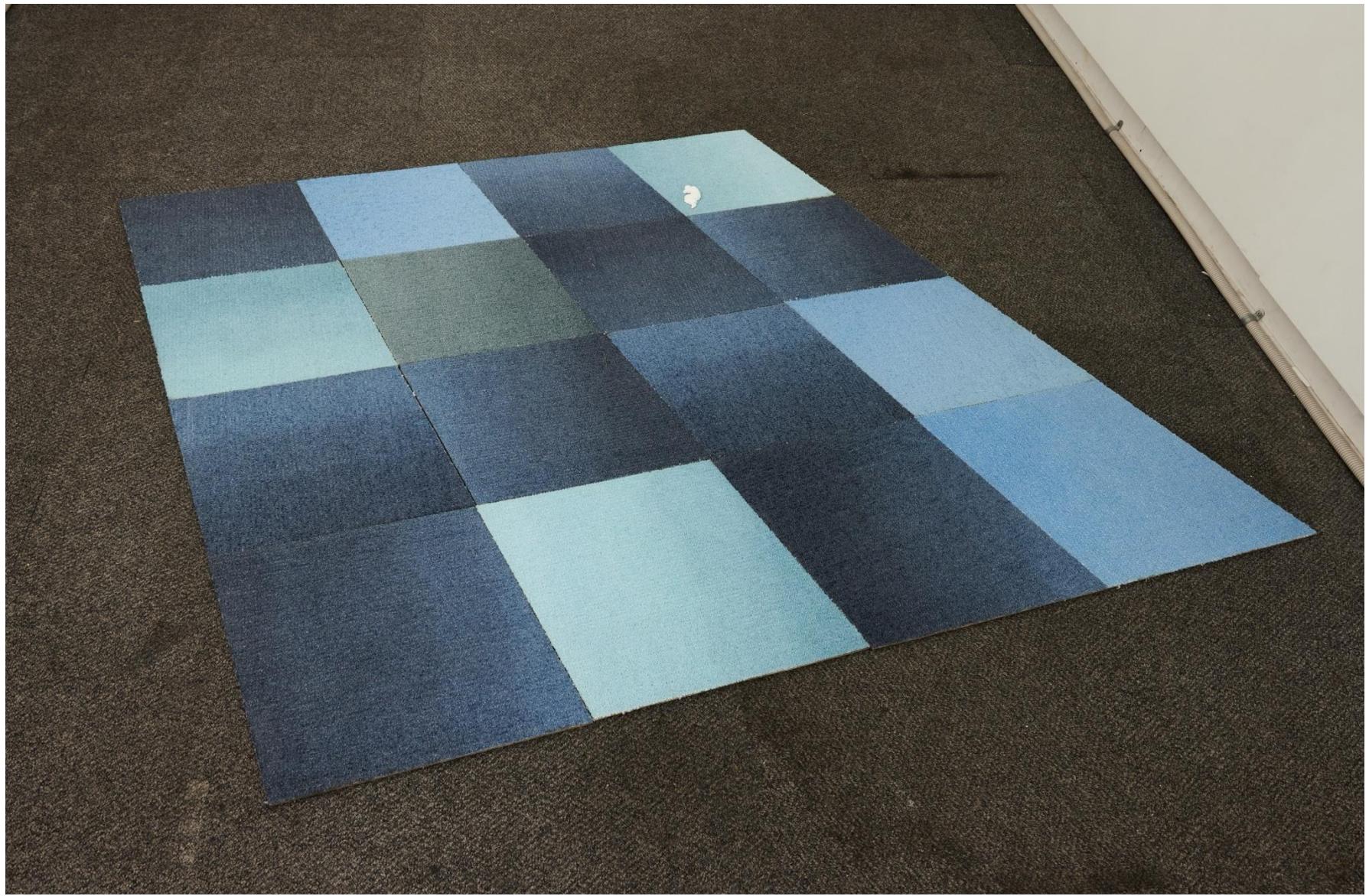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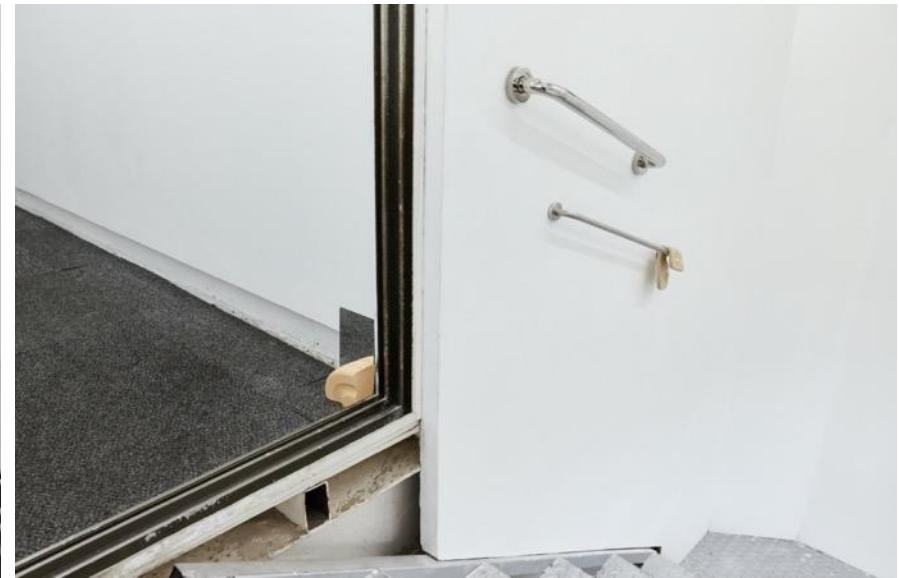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쉬운 길

크거나 딱 맞거나 작은 크기, 점토, 나무, 금속, 거울, 석고, 타일, 2023

Easy Way

Smaller or larger than a Room. or Fit size, Clay, Wood, Metal, Mirror, Gypsum, Tile, 2023

잘하는 친구

A Friend Who's Got It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잘하는 친구〉는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의 일부로, 에임즈룸**과 양말2pt***의 도움을 구하여 마련한 작업이다.

전시 보기가, 관객의 삶이 필요로 하는 경험의 할당량을 충실히 채우는 여분의 활동이 될 수 있다면 〈잘하는 친구〉는 그들의 일을 기꺼이 돋는 친구로, 좋은 전시 활동을 함께하는 (잘 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바란다.

전시에게.

(전략)

하늘 봤어? 어울리는 듯 어지러운 그 창문에 붙은 하늘 (구름에 우리 강아지 나 | 웨드로잉, 2019). 민망한 숨을 고르는 동안 잠시 훑겨보기에 나쁘지 않았었지. 너무 복잡하게 생긴 건 종종 지나치기 좋아 그치. 하늘 화면의 가운데쯤 뚫려있던 창에 핸드폰(잘하는 친구 | 에임즈룸에 양말2pt, 초롱이, 스마트폰, 2019)이 좀 더 궁금했었지. 거기서 움직이는 거 봤어? 방 안쪽의 사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했었지. 스크린으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론 잘 안돼. 친구와 번갈아 보아주거나 먼저 온 누군가를 사과 보듯이 해야 했거든. 어쩌면 텅 빈 방만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나는 운이 좋게도 먼저 보고 있던 관객이 a가 있었어. (웰컴) 어색한 입장에 익숙한 동선을 만드는 종이가 여러 장 있었던 것 같아. 으레 찾는 핸드아웃과 조금 얇은 종이 하나, 살짝 뻣뻣한 종이 하나. 또 있었나. 전시를 볼 때면 눈과 발을 힘껏 쓰느라 손과 입이 괜히 어색하거든. 그래서 종이 뭉치를 한 번에 말아 쥐고 턱에 가져다 대는 거야. 톡톡. 하여튼 전에 본 그 소라(ぞら)색 에임스룸 (ames room)이 여기서 집어온 걸 색칠해 놓은 거야. 너도 챙겼지? 이름도 쓰고? 방의 내부는 좀 불편했어. 그 덕분에 꽤 자세히 기억이 나. 밖에서 보던 거랑 다르게 좀 좁았었고, 반대쪽으로 가려면 천장과 바닥이 붙을 지경이었잖아. 그래서 들여다보던 모습과 내부를 자꾸 비교해 보게 되었어. 좀 전 바깥은 서성이던 눈을 끌어와 떠올리며 함께 사용하는 기분이 들면서. 바깥의 시선을 자연스레 의식 해보기도 했어. 내가 봤던 a의 모습처럼 G가 나를 A라 부르면 보고 있겠지. 이상한 봉사 정신이 일기도 했지만 그정도 이유로 지나치게 불편한 척 하지는 않았어. 기울어진 바닥과 그 위에 붙은 타일의 상태를 채 전부 살피기도 전에 건너편의 방이 보여. 삼면(三面)의 거울방. 무수한 벽과 바닥과 천장의 틈으로 얼굴을 내미는 구겨진 나와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 조각 한 점(초롱이 | 거울, 점토, 타일, 2019). 사방이 나를 구겨 넣어 강아지 한 마리 (+무수)와 만나게 만드는 건 무슨 고약한 일인지. 딱딱한 강아지가 더 딱해 보였어.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남성 인물처럼 서서 소변을 보는 말티푸(말티즈+푸들)가 나왔었어. 동물행동심리분석가 선생님은 강아지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러는 거라고 했었나. 해결 없는 위로를 띄우는 나레이션으로 끝이 났던 것 같아. "초롱아 기운 내~!" 그 강아지의 표정이 떠오르네. 더구나 얘는 어디를 보아도 나를 거울 속에서 보고 있잖아.

(후략)

*〈안녕 휴먼?〉은 크게 두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잘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의 친구〉.

**에임즈룸은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알버트 에임즈 주니어(Albert Ames Junior)가 고안한 착시공간으로, 하나의 핀홀을 기준 삼아 왜곡된 공간을 구현하여 스케일을 다르게 인지하게 하는 기술이다.

***양말2pt는 작업자가 고안한 착각장치로, 질감과 색채 등 온갖 요철을 세심히 살피고 구현하여 각각의 기간을 약간 더(또는 덜) 확보할 수 있도록 돋는 (귀여운)조형 파트너이다.



잘하는 친구 - 초롱이

애견 크기, 점토, 거울, 타일, 2019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A Friend Who's Got It - Cho-Long-Eee

Size of Puppy, Clay, Mirror, Tile, 2019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Hello Human?」 Art Space Pool, Seoul, Jun. 13.- Jul. 14. 2019.



잘하는 친구

가변 크기, 에임즈 룸에 양말2pt, 초롱이, 스마트폰, 2019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Ames room, Cho-Long-Eee, Smartphone, 2019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Hello Human?」 Art Space Pool, Seoul, Jun. 13.- Jul. 14. 2019.



잘하는 친구

가변 크기, 애임즈 룸에 양말2pt, 초롱이, 스마트폰, 2019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Ames room, Cho-Long-Eee, Smartphone, 2019

Detail



잘하는 친구

가변 크기, 에임즈 룸에 양말2pt, 초롱이, 스마트폰, 2019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Ames room, Cho-Long-Eee, Smartphone, 2019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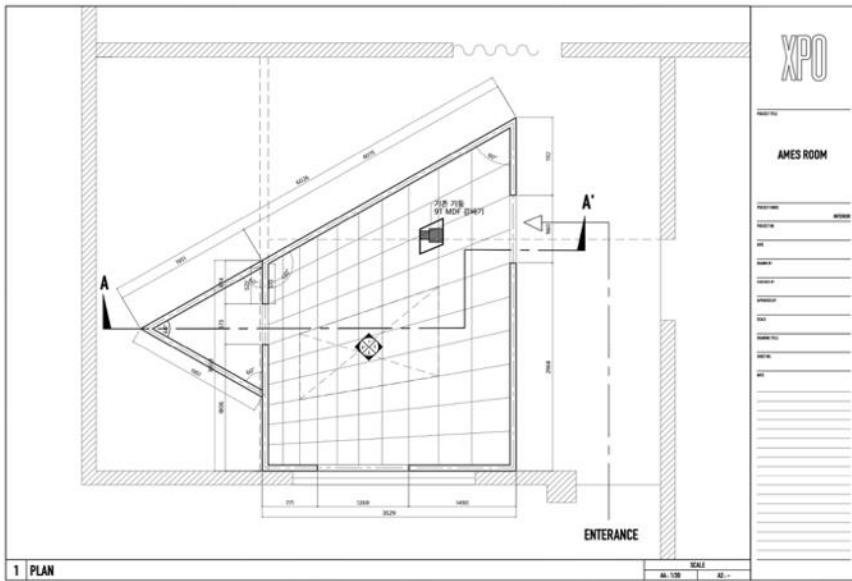
잘하는 친구-구름에 우리 강아지 나

창문 사이즈, 웨드로잉, 2019

A Friend Who's Got It- Us the Dog Me in the Clouds

Size of Window, Wed Drawing,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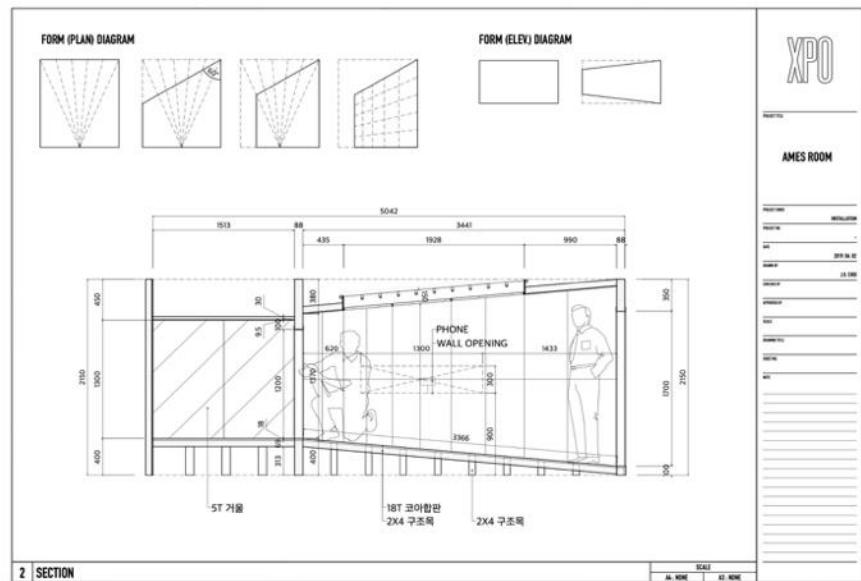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잘하는 친구 (설계)

가변 크기, 에임즈 룸에 양말2pt, 초롱이, 스마트폰, 2019

도면과 에임즈 룶 공간 구현, 설계 도움 : 최 조훈(XPO)



A Friend Who's Got It (Floor plan)

variable size, Ames room, Cho-Long-Eee, Smartphone,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A Friend of Friend Who's Got It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잘하는 친구의 친구〉는 〈잘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는 작업이다.

「안녕 휴먼?」*, 「양말이피티」**, 「워시3의 세면 대 스케일링」***, 「전설의 삼두상」, 「만두」, 「고부조저부조」****가 동선과 시야를 소개하며 「친구 그림」(2019)과 마주보고 있다.

(전략)

그림이 있었고. 부조와 벽에 붙은 게 좀 있고. 실은 이쪽은(‘잘하는 친구’에 비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앞의 체험만으로 그날 채워야 할 경험의 할당량을 이미 채웠다 할까. 느낌 정도만 떠오르는데, 뭔가. 자꾸 넘어야하고, 살펴야하고, 피해야만 했었어. “동선이 안 나왔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도 그랬지만 말이야, 기분이.

(중략)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은 (애써) 애매하게 피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창가 쪽 뿐이었어. 뭐가 많이 있어 보였지만, 포장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 예전에 한 번쯤 다른 전시에서 보았던 것들이어서, 이렇게 모아 두는 건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걸까. 골몰이었지. 낭만적인 풍경이 괜히 아쉬워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래 첫 개인전이니까, 이전의 작업들이 못내 아쉬우니까. 모아서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그런데 좀 적지 않나. 생각하며, 있을리 없는 우정으로 빛은 걸음을 딛으며 자리를 옮기던 중. 응. 바로 이때쯤. 번뜩이는 게 있을만도 했지. 그래. 내가 발견한 건, 하나만 꼽아 보자면. 그림을 등지고 서서 보이는 풍경이 있었지? 그래 그거야. 주어진 문제와 답을 옮겨적 듯, 전시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고분고분 따라가다보면 이상한 불쾌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장치를 곳곳에 배치 해 두었던 거야. 그간 익숙하게 소모해 온 걸음이나 시야를 지루해질만큼 꽉꽉 채운 후에야 비로소 그 바깥의 눈을 빌려 굴려 볼 생각에 닿을 수 있었던거지. 거인이나 소인이나 강아지나 분신의 눈 또는 다리를 빌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어? 그것으로 뭘 하고 싶어?

(중략)

머리를 부딪쳤던 천장과 시차가 생기는 사진, 창문의 낙서나 그림의 높이, 손자국들, 밝히지 않기로 한 것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비좁은 그곳에 내 머리를 깎아 넣는 것 외엔 그다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 모양새들. 체험의 할당량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는 (장애물 같은 몇 몇의 둔덕을 건너) 창가 쪽에 꽤 앉아있었어. 그 자리를 좀 더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돋는 친구들이 있었고, 덕분에 조금 더 있을 수도,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 그래서인가, 그 뒤는 자세히 기억하지 않기로 했나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중간에 어딘가 들렀던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걸었다던가 했던 것 같아.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렸고, 아스팔트로 걷지 않았고, 편의점에 들르지 않았던 것이 생각 나.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아트센터, 서울, 2019

**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2018

*** 「장르알레고리-조각적」, 토탈미술관, 서울, 2018

****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7



잘하는 친구의 친구

가변크기, 안녕 휴먼, 양말 이피티, 워시3의세 면대스 케일링, 전설 의삼두 상, 만두, 고부조저부조, 친구 그림, 2019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Hello Human, Yang-Mal-E-P-T, Wash3's Face vs Scaling, Legendary Faces, Mandoo, Painting of Friend, 2019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Hello Human?」 Art Space Pool, Seoul, Jun. 13.- Jul. 14.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가변크기, 안녕 휴먼, 양말 이피티, 워시3의세 면대스 케일링, 전설 의삼두 상, 만두, 고부조저부조, 친구 그림, 2019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Hello Human, Yang-Mal-E-P-T, Wash3's Face vs Scaling, Legendary Faces, Mandoo, Painting of Friend, 2019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Hello Human?」 Art Space Pool, Seoul, Jun. 13.- Jul. 14.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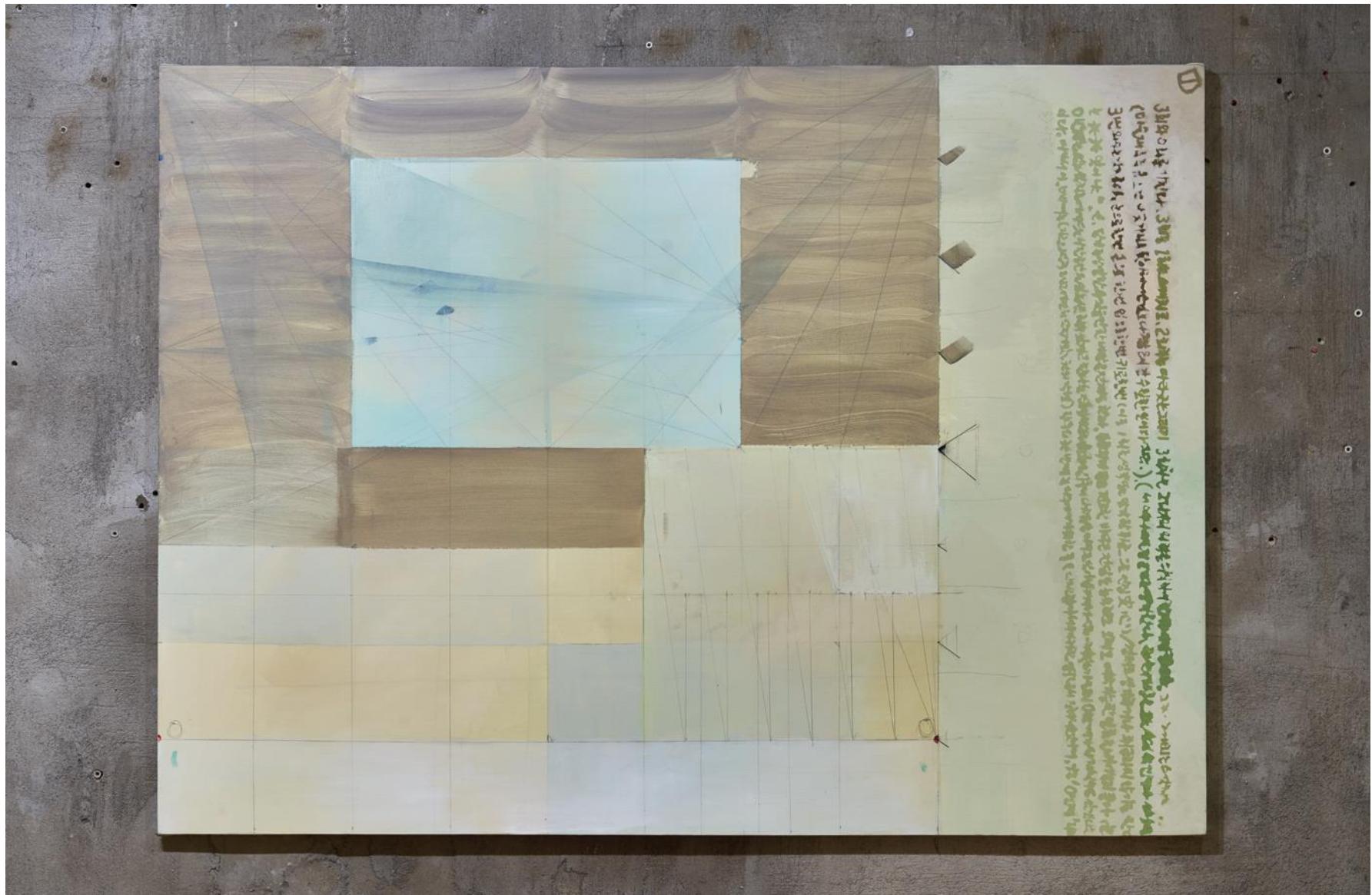
가변크기, 안녕 휴먼, 양말 이피티, 워시3의세 면대스 케일링, 전설 의삼두 상, 만두, 고부조저부조, 친구 그림, 2019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9.06.13.-07.14.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Hello Human, Yang-Mal-E-P-T, Wash3's Face vs Scaling, Legendary Faces, Mandoo, Painting of Friend, 2019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Hello Human?」 Art Space Pool, Seoul, Jun. 13.- Jul. 14.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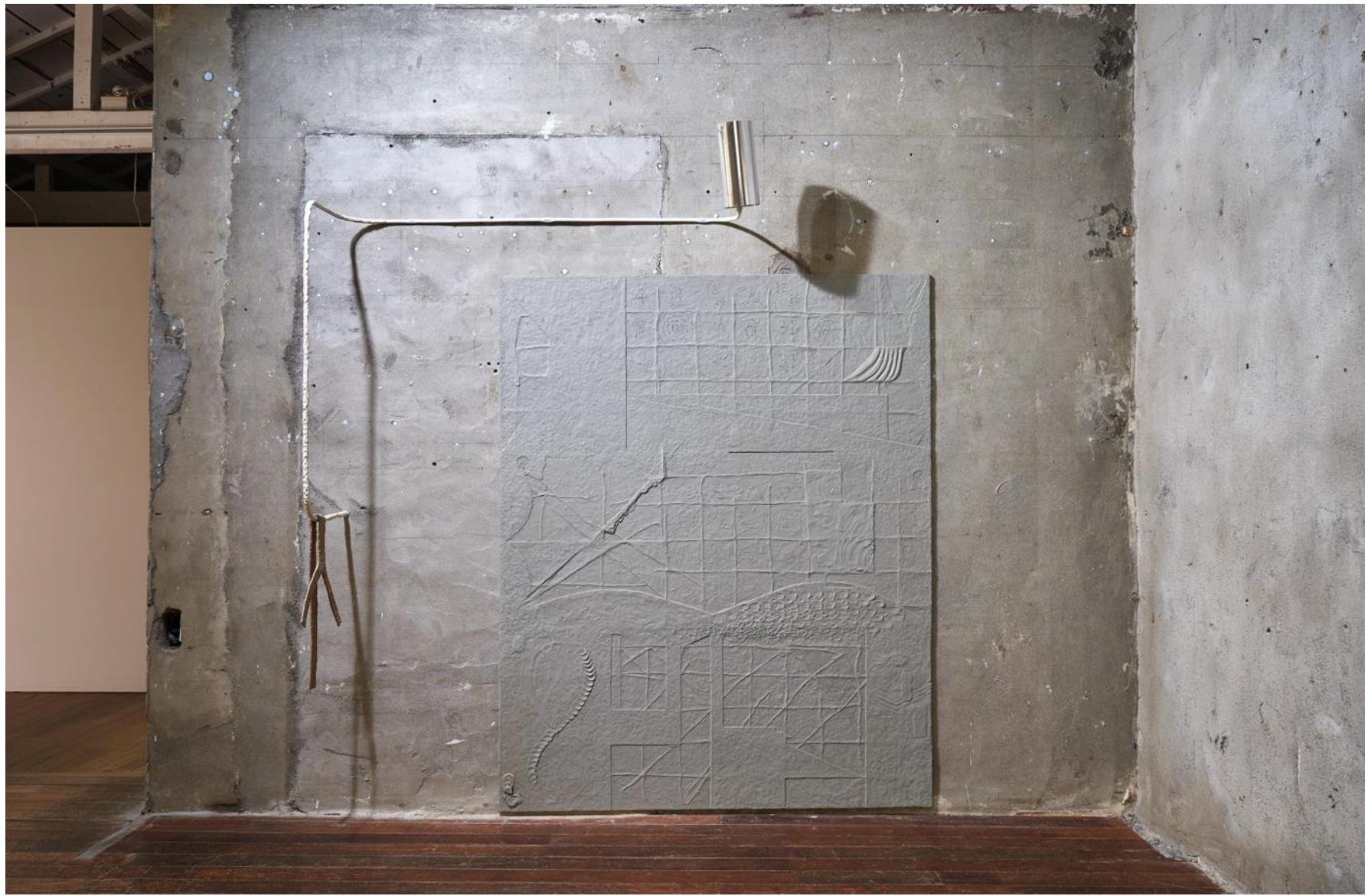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친구 그림

130.3 x 97.0(cm), 면천에 채색,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Painting of friend

130.3 x 97.0(cm), Painting on Linen,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친구 그림 2

135 x 120(cm), 나무, 적동, 필름, 점토,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Painting of friend 2

135 x 120(cm), Wood, Copper, Film, Cla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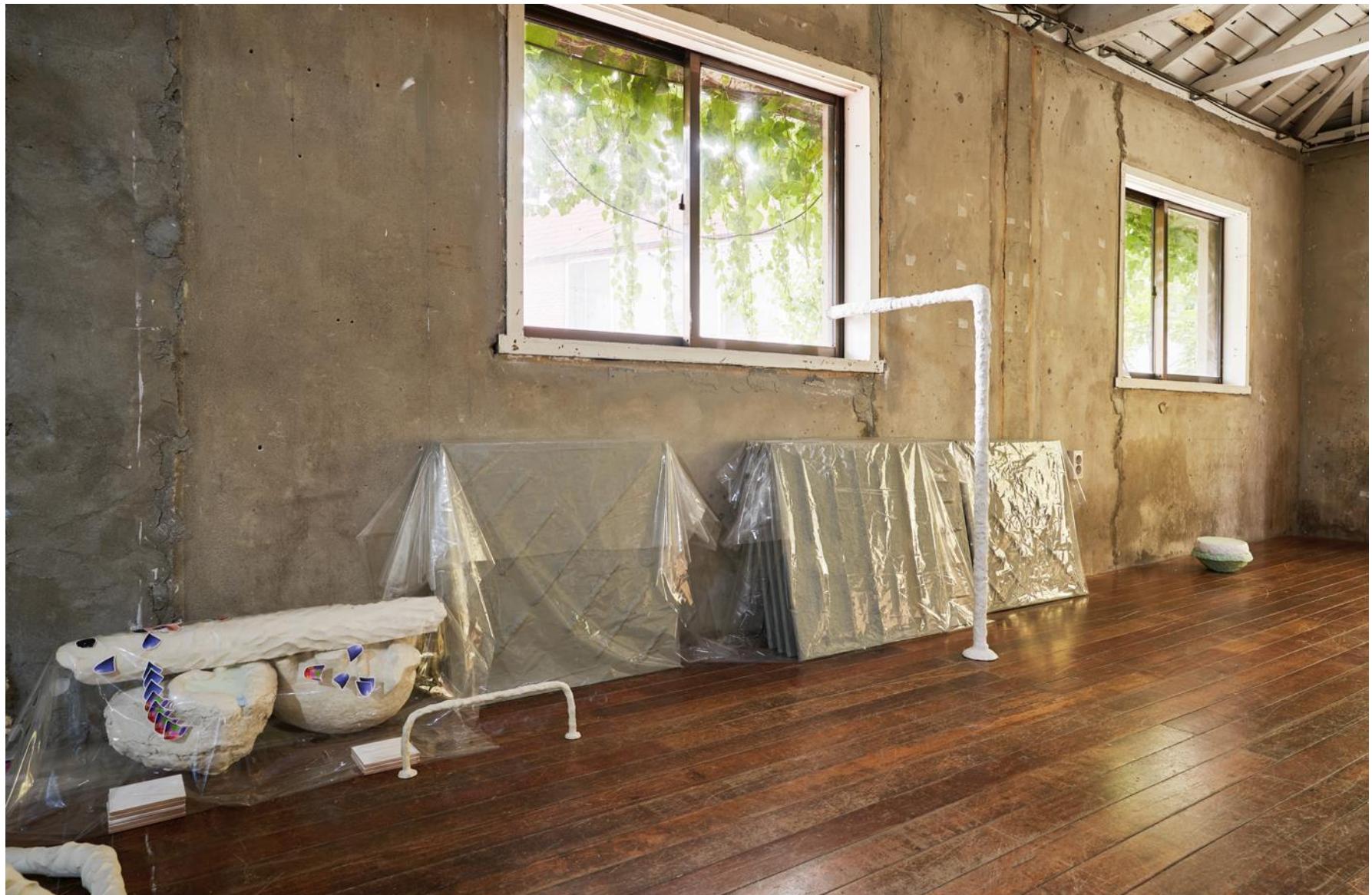


잘하는 친구의 친구

가변크기, 안녕 휴먼, 양말 이피티, 워시3의세 면대스 케일링, 전설 의삼두상, 만두, 고부조저부조, 친구 그림,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Hello Human, Yang-Mal-E-P-T, Wash3's Face vs Scaling, Legendary Faces, Mandoo, Painting of Friend,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가변크기, 안녕 휴먼, 양말 이피티, 워시3의세 면대스 케일링, 전설 의삼두상, 만두, 고부조저부조, 친구 그림,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variable size, Hello Human, Yang-Mal-E-P-T, Wash3's Face vs Scaling, Legendary Faces, Mandoo, Painting of Friend, 2019

Detail



잘하는 친구의 친구 – 벽, 돌머리, 쪽지, 주머니(상단부터 시계방향)
인물에 어울리는 크기, 점토, 나무, 바닥재, 석고,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Wall, Stonehead, Letter, Poket (Clockwise from top)
A Size for a Human beings, Clay, Wood, Materials of Floor, Gypsum,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쪽지, 거울, 손잡이, 바닥 (상단부터 시계방향)
인물에 어울리는 크기, 점토, 나무, 바닥재, 석고,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Letter, Mirror, Handle, Floor (Clockwise from top)
Size for a Human beings, Clay, Wood, Materials of Floor, Gypsum,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안녕 휴먼
인물에 어울리는 크기, 점토, 거울, 매직-펜,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Hello Human
Size for a Human beings, Clay, Mirror, magic-Pen,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안녕 휴먼
인물에 어울리는 크기, 점토, 거울, 매직-펜,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Hello Human
Size for a Human beings, Clay, Mirror, magic-Pen, 2019

Detail



잘하는 친구의 친구 – 만두
한 손 크기, 점토, 거울, 비닐,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Mandoo
Handy size, Clay, Mirror, Vinyl 2019



잘하는 친구의 친구 – 전설의 삼두상

150x150x150(cm), 점토, 비닐, 2019

A Friend of a Friend Who's Got It – Legendary Faces

150x150x150(cm), clay, vinyl, 2019

양말이피티

Yang-Mal-E-P-T

김 대환 개인전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2018.09.07.-28.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내가 만든 친구는 요술쟁이'

(EBS TV프로그램 '만들어볼까요' 中)

양말이는 김 대환과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의 이름이다. 그것은 귀엽고 애정이 넘치며 어디로든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넣을 자신이 있다. 대환은 양말보다 열 배 정도 커다랗고 귀엽지 않지만 애정이 넘치는 양말의 좋은 친구이다. 양말은 대환의 무릎을 건들거나 소리를 뱉어 그를 부르고 대환은 양말의 온기를 귀엽게 취급한다.

둘은 팀(양말2pt)을 맺어 스케일 업-한다. 그리하여 양말2pt는 귀여우면서도 휴먼 급이다. 그리고 김 대환은 양말2pt와 협업하여 2인 전시(양말이피티)를 만든다. 그리하여 양말이피티는 귀여우면서도 (휴먼x휴먼) 급이다.

2*

(전략)

1층과 2층을 알고 있습니다. 1층을 훑겨보고 2층으로 오르는 문을 선택한다. 문에는 웹사이트(취미가 사이트 주소), sns계정(취미가 계정 링크), 미리 확인 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 눈이 뚫린 애견이 마음에 걸린다. <양말이피티> (김 대환, 양말2pt 참여, 취미가 기획, 신신 디자인) 보기는 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다. 잊기로 한다. 문손잡이는 약간 헐렁하다. 당겨 잡는 문은 손잡이의 상태나 질감을 조금 더 의식하게 된다. 주로 밀어보는데, 낮지만 작은 부담을 지닌 첫 계단 때문에, 또는 덕분에. 당기기를 먼저 한다. 원손이 자연스럽고, 몸은 원손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에서 (중략) 회색 바닥은 인물의 무릎 높이만큼 올라 있고, 빗면의 벽 쪽으로 큰 창문과 앉을 곳이 있다. 실내에만 쓰이는 바닥재라는 것을 연약해 보이는 표면 상태를 보아 짐작 할 수 있다. 포스터와 연결 지어 상상해 보았을 때 애견 보호 바닥을 연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카운터로 향하는 약속된 동선에, 종일 온갖 바닥을 딤은 발을 그 강아지의 바닥으로 엎어 놓는다. 취미가(趣味家 Tastehouse 2F)는 3,000원의 관람료(국립현대미술관 통합권보다 1,000원이 저렴하다.)를 받는다. 수 차례 탄생하고 사라진 미술공간들을 딛고 결정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값을 치르고 나면 관람에 유용한 긴장과 안심, 필요에 의한 보람과 충실한 감각을 내세울 수 있다. 이름을 적는 노트를 앞에 두고 건너 받는 표와 페이퍼. 이 익숙한 동선을 전부 완수해내고야 만다면, 한동안 만나게 되는 무엇에게서 건 무엇이든 가성비 좋게 얻어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근사한 기분이 된다. 이미 밟은, 미세하게 푹신한 바닥을 따라 오르는 낮은 (무릎)언덕을 앞에 두고 동선을 고민한다. 언덕을 두고, 통로를 두고, 반대편에 속하는 작은 구역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통로라는 마련된 순차를 따를 것인지, 먼저 눈에 들어온, 바닥-발을 이미 들인 회색을 이어 밟아 갈지 고민하는 것이다. 언덕을 먼저 오르기로 한다. <주머니> (바닥재, 2018) 이미 아주 조금 푹신한 바닥을 저마다 낮게 띄운다. 그리고 귀엽다. 무릎높이의 등반을 무사히 완수해내고 나면, 무릎 근처의 일을 아킬레우스건 쯤에서 기억하고 있으며, 그 높이를 딛고 어느 거인의 머리를 얻어 관람하는 탁월한 경험 덕분에 아주 미미한 보람이나 고양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아쉽게도 거인에게 마련된 즐거움은 거의 없다. <삼점시 드로잉> (벽에 연필, 2018) 언덕의 끝에선 뛰어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걸터앉는다. 발을 내리는 구역을 낮게 둘러싸는 검은 필름을 만난다. 언덕 높이 만큼을 주욱 둘러놓았다. 비치거나 반사되는 다리를 기대해보았지만 말끔히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걷기 보다는 잠시 앉아있기로 한다.

(후략)



양말이피티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2018.09.07.-28.

Yang-Mal_E-P-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Yang-Mal-E-P-T」 Taste House, Seoul, Sep. 07.- 2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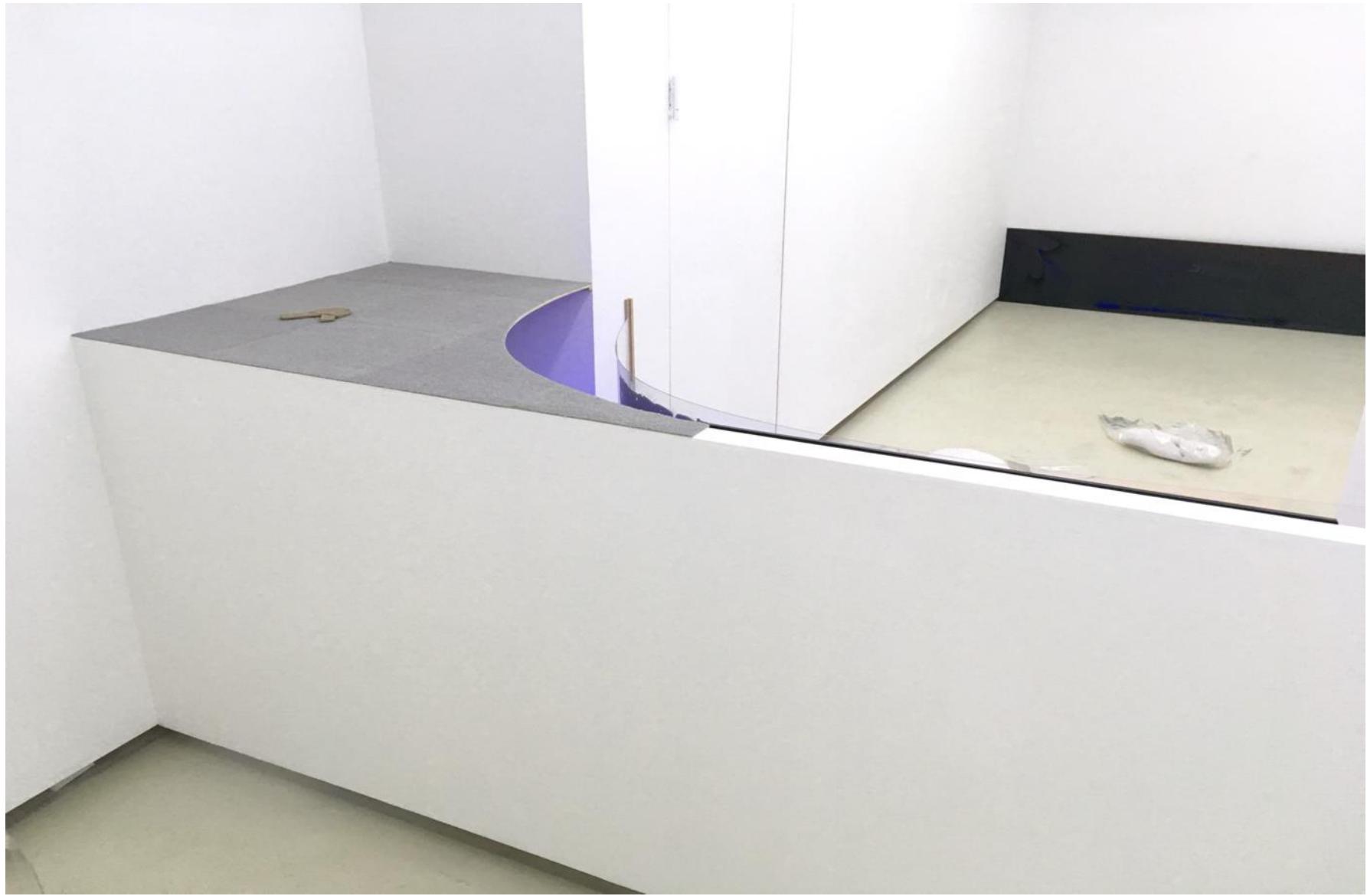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2018.09.07.-28.

Yang-Mal_E-P-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Yang-Mal-E-P-T」 Taste House, Seoul, Sep. 07.- 2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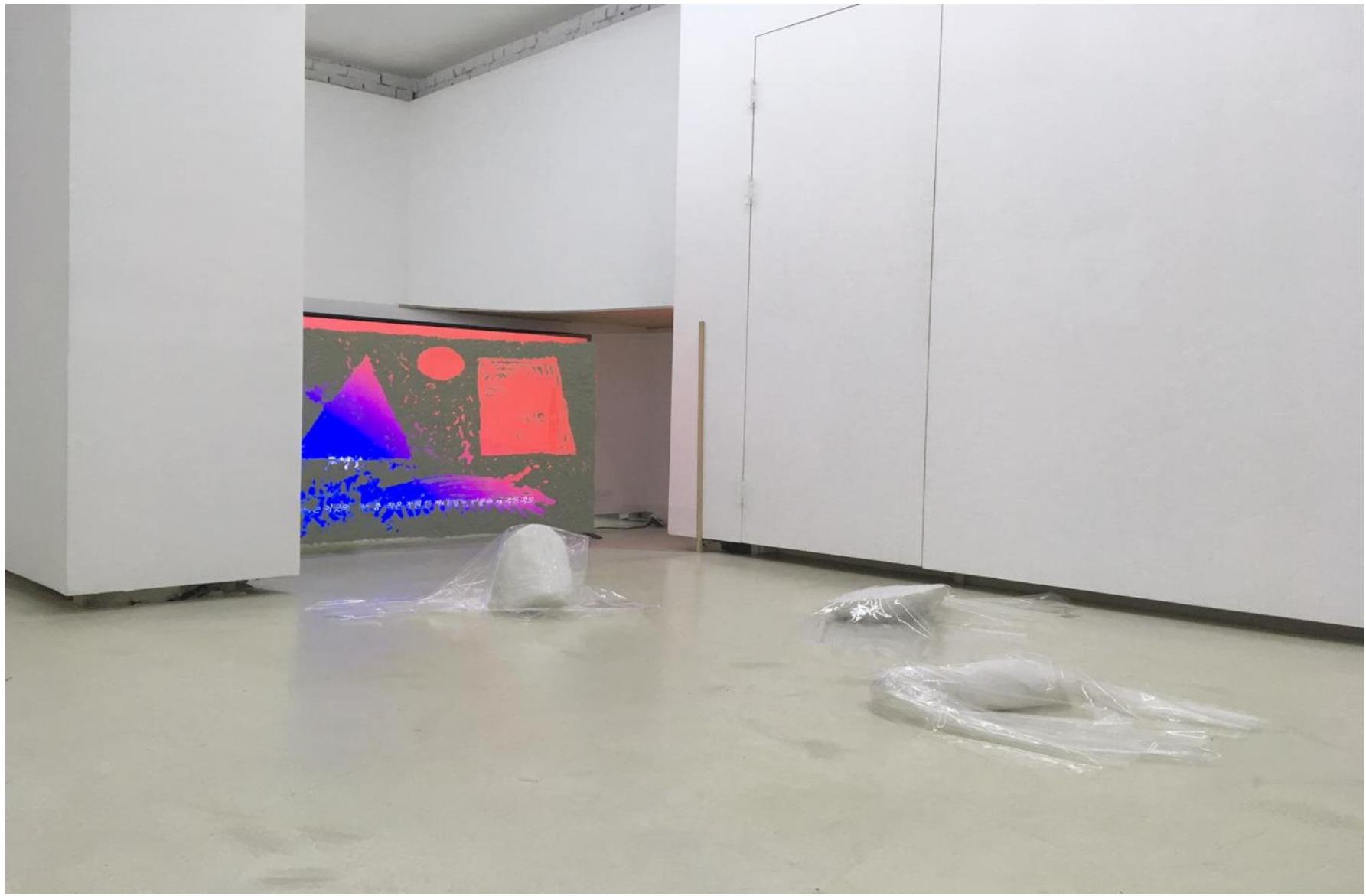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양말이피티」 츄미가, 서울, 2018.09.07.-28.

Yang-Mal_E-P-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Yang-Mal-E-P-T」 Taste House, Seoul, Sep. 07.- 2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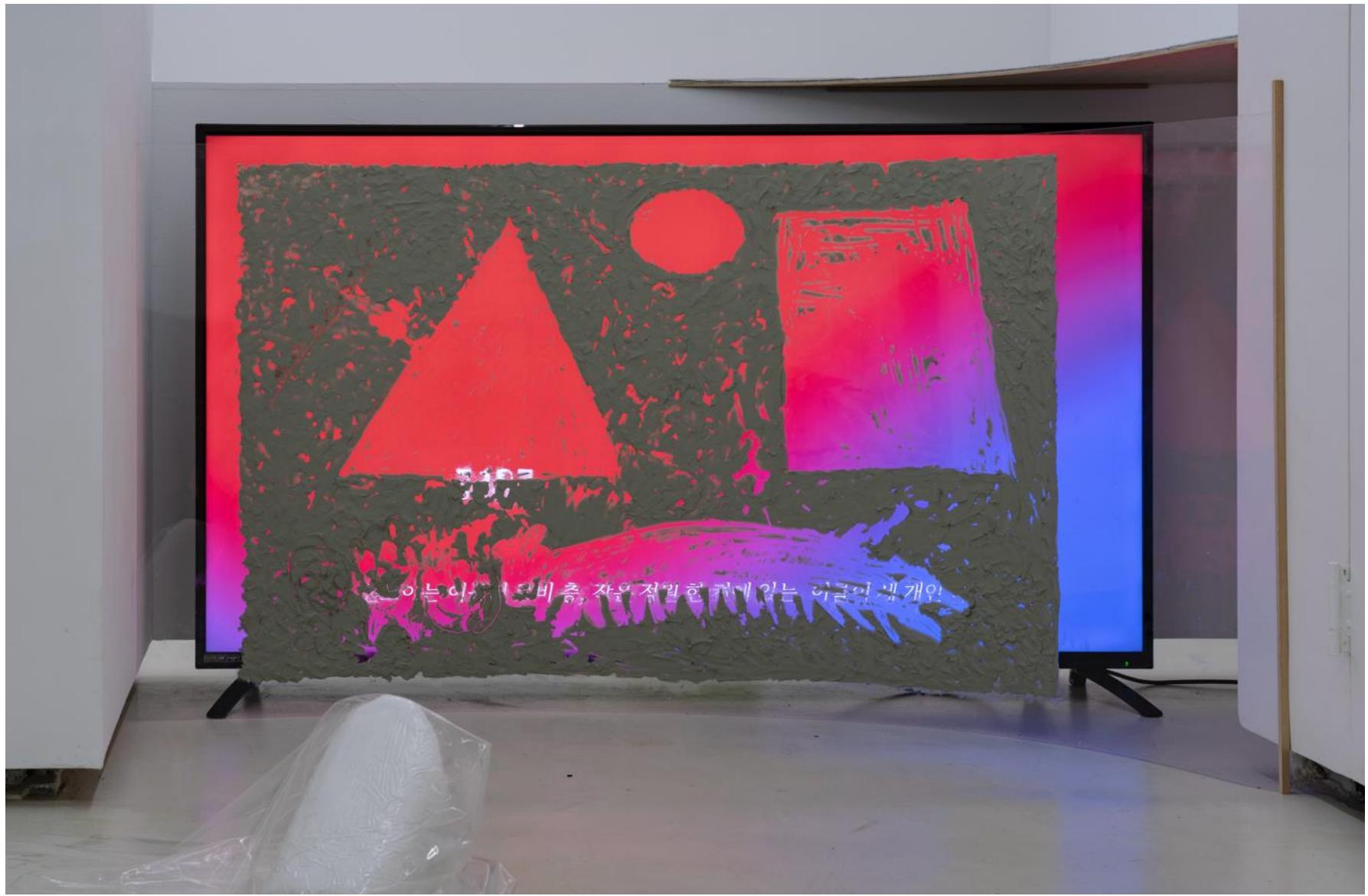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설치 전경, 김 대환 개인전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2018.09.07.-28.

Yang-Mal_E-P-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Installation view, Solo Exhibition of Dahwan Ghim 「Yang-Mal-E-P-T」 Taste House, Seoul, Sep. 07.- 2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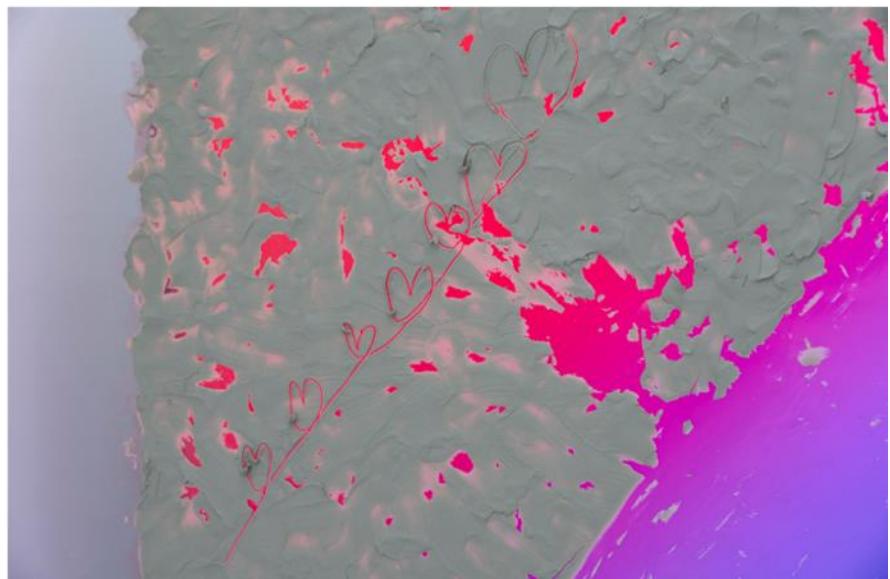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 세 잔의 무게
10,000 카운트, 비디오, 스크린, 점토, 2018

Yang-Mal_E-P-T - Pressure of Three Cheers
10,000 Count, Video, Screen, Clay, 2018



양말이피티 – 세 잔의 무게
10,000 카운트, 비디오, 스크린, 점토, 2018



Yang-Mal_E-P-T - Pressure of Three Cheers
10,000 Count, Video, Screen, Clay, 2018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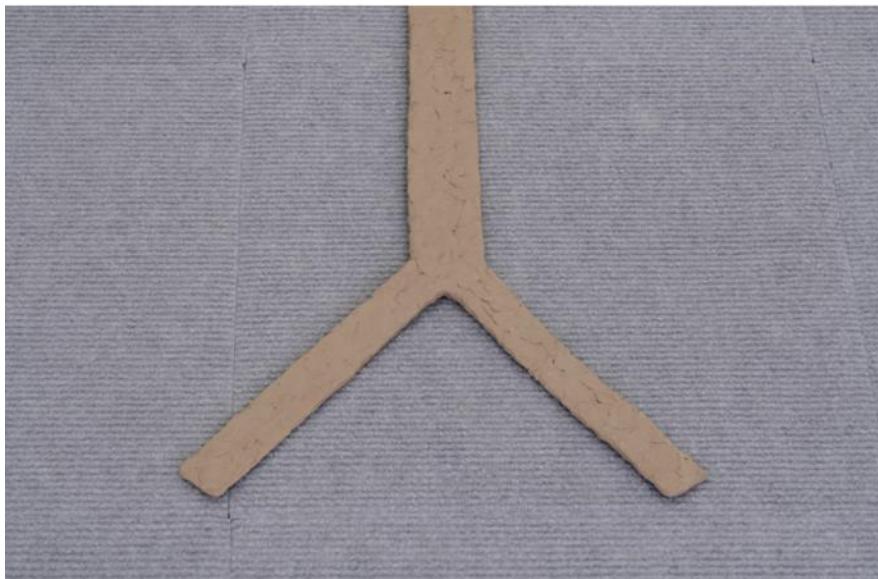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 경사 바닥과 주머니가 있는 풍경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Yang-Mal_E-P-T - Landscape with Sloping Floors and Pocke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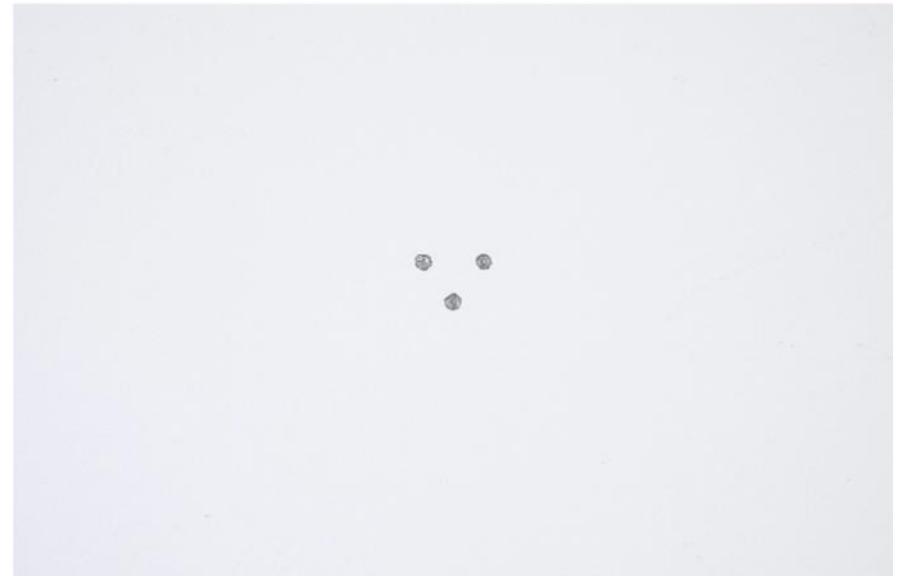


양말이피티 – 경사 바닥과 주머니가 있는 풍경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Yang-Mal_E-P-T - Landscape with Sloping Floors and Pocke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Detail



양말이피티 – 경사 바닥과 주머니가 있는 풍경
인물과 강아지, 그 팀에 어울리는 크기, 2018



Yang-Mal_E-P-T - Landscape with Sloping Floors and Pocket
size for a Team of human and dog,
Clay, Wood, Metal, Paper, Screen, Film, Gypsum, Materials of floor, 2018
Detail



양말이피티 – 쪽지

120 x 5 x 0.8(cm), 점토, 2018



Yang-Mal_E-P-T – Letter

120 x 5 x 0.8(cm), Clay, 2018



양말이피티 – 돌머리

머리 크기, 석고, 실리콘, 2018

Yang-Mal_E-P-T – Stone Head

Size of head, Gypsum, Silicon, 2018

전설보기컬렉션

Legendary Collection

「파이널 판타지」
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7.10.20.-12.02.

〈전설 보기 컬렉션〉은 기획 전시 「파이널판타지」의 일부로 선보인 작업이다. 파주의 삼현(三賢) 퇴계 이황, 황희, 율곡 이이의 초상을 이어 붙여 만든 〈전설의 삼두상〉, 이들의 〈귀〉, 시야를 가로막는 〈난치기〉, 배경을 담당하는 바닥 마방진 〈고부조저부조〉와 한 손 크기의 〈만두〉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하지 않기로 한 벽 하나는 흙으로 X 그어 두었다.

천하삼분지계*

『삼국지연의』의 등장인물인 제갈량은 솔의 발에 비유하여 발이 두 개인 솔은 세울 수 없지만 세 개인 솔은 세울 수 있음에, 천하를 삼분하여 견제하는 구도를 제안한다. 제안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방영 중인 케이블 드라마 〈삼국지〉의 꾸준한 시청률이 돋는다. 마찬가지로 국사 교과 중간고사의 백제, 신라, 고구려 농담 따위가 돋고, 삼천궁녀, 삼신할매, 아기돼지 삼형제, 가위바위보와 삼세판, 칸딘스키의 삼각형, 포켓몬스터의 스타팅 멤버, 레토르트 카레가 돋는다. 도움을 건네어 받아, 하루에 세끼 먹고, 세 번 치아를 손질한다. 단어 30개를 외우고, 운동 3셋트, 셋을 센다. (중략)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를 세는 법이 있다. 뱃속의 시간을 1살로 세는 나이, 태어난 날로부터 세는 만(滿)나이, 소년법과 군법 등 행정상의 편의를 적용하기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年) 나이. 취급의 높임을 나이 기준으로 둘 때 세는 나이를 알 수 있고, 국외에서 나이를 밝히는 경우에 만 나이를 알 수 있으며, 음주허가나 행정상의 취급 및 처리 또는 군 관련 소집 시에 연 나이를 알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의 표준시는 30분 차이가 난다. 같은 날, 평양(과 앙부일구가)이 6시에 해가 뜬다면 서울(과 도쿄는)은 5시 30분에 해가 뜬다. 시간을 삼등분 하는 일은 여려모로 쓸모가 많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들고 저마다 어울리는 캐릭터를 암힌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각각의 식사를 암히듯. 과거엔 무겁고 거대한 덩어리를 놓고, 현재엔 충실하고 밝은 기운의 터치, 미래엔 세련되고 날렵한 사선을 긋는다. 충분히 길이 들면 비슷한 모양만 스쳐도 시간을 느끼는 것만 같아질 수 있다.

맛지도

ㄱ. 혀지도는 맛을 느끼는 혀의 각 부분을 나누어 표기하는 지도이다. 쓴맛, 신맛, 단맛, 짠맛을 구별하여 느끼며 쓴맛은 회색, 신맛은 노란색, 단맛은 초록색, 짠맛은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후 연구 논문의 번역 오류가 밝혀지면서 교과과정 및 박물관, 과학실에 있던 혀지도는 삭제된다.

ㄴ. 맛집은 맛이 있는 집의 줄임말로, 많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식당을 일컫는 이름이다. 많은 고객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에도 맛집은 웹과 입소문 등을 통해 공유된다.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 미슐랭에서 출간하는 가이드북은 세계의 맛집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가이드이며, 맛으로 하여금 몸을 움직일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ㄷ. 세계지도는 등근 지구를 평면으로 옮기기 위해 플랑드르의 지도학자가 고안한 메르카토르 도법을 활용해왔다. 이 도법은 항해를 위한 도법으로 운항에는 알맞으나,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 방향, 거리의 왜곡이 커진다. 그러나 지도의 ㅂ. 미켈란젤로의 말 '모든 돌덩이는 그 안에 조각상을 가지고 주 사용자가 항해사였던 점이나, 상상의 항해를 선물하는 마음,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과업이다'에서 그의 눈이 선점한 이미지의 성공 등의 이유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는 것, 그의 손이 하는 일.

세계지도이다. ㅂ. 한국의 미술대학입시 실기는 일본의 입시 제도를 참고하여 부처를 꺼내어드리는 것뿐이지요'에서 그의 눈이 보는 것, 그의 꾸려졌는데, 학과를 나누는 기준이나 석고상과 정물 등을 소묘, 손이 하는 일.

수채, 조소하는 시험의 내용이다. 이때 고득점은 받기 위한 조건은 대상의 형상과 (손)맛을 얼마나 잘 담아내었는가인데, 이를 연마하는 것이 입시 준비 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미술대학에 합격한 이들은 시험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손맛을 인정받은 무리가 된다.

ㅁ. 대한민국의 배우 김혜자는 1989년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조미료 광고를 인기리에 이끌었으며, 2010년 '엄마의 마음'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편의점 도시락을 흥행시켰다.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도록에 수록된 김 대환의 글 일부를 발췌



전설 보기 컬렉션

전설의 삼두상, 귀, 난치기, 고부조저부조, 만두, X, 2017

설치 전경,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7.10.20.-12.02.

Legendary Collection

Legendary Faces, Ears, Nan, High Relief Low Relief, Mandoo, X, 2017

Installation view, 「Final Fantasy」 Hite Collection, Seoul, Oct. 20. - Dec. 02, 2017.



전설 보기 컬렉션

전설의 삼두상, 귀, 난치기, 고부조저부조, 만두, X, 2017

설치 전경,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7.10.20.-12.02.

Legendary Collection

Legendary Faces, Ears, Nan, High Relief Low Relief, Mandoo, X, 2017

Installation view, 「Final Fantasy」 Hite Collection, Seoul, Oct. 20. - Dec. 02, 2017.



전설 보기 컬렉션 – 전설의 삼두상

150x150x150(cm), 점토, 흑경, 2017

Legendary Collection – Legendary Faces

150x150x150(cm), Clay, Black Mirro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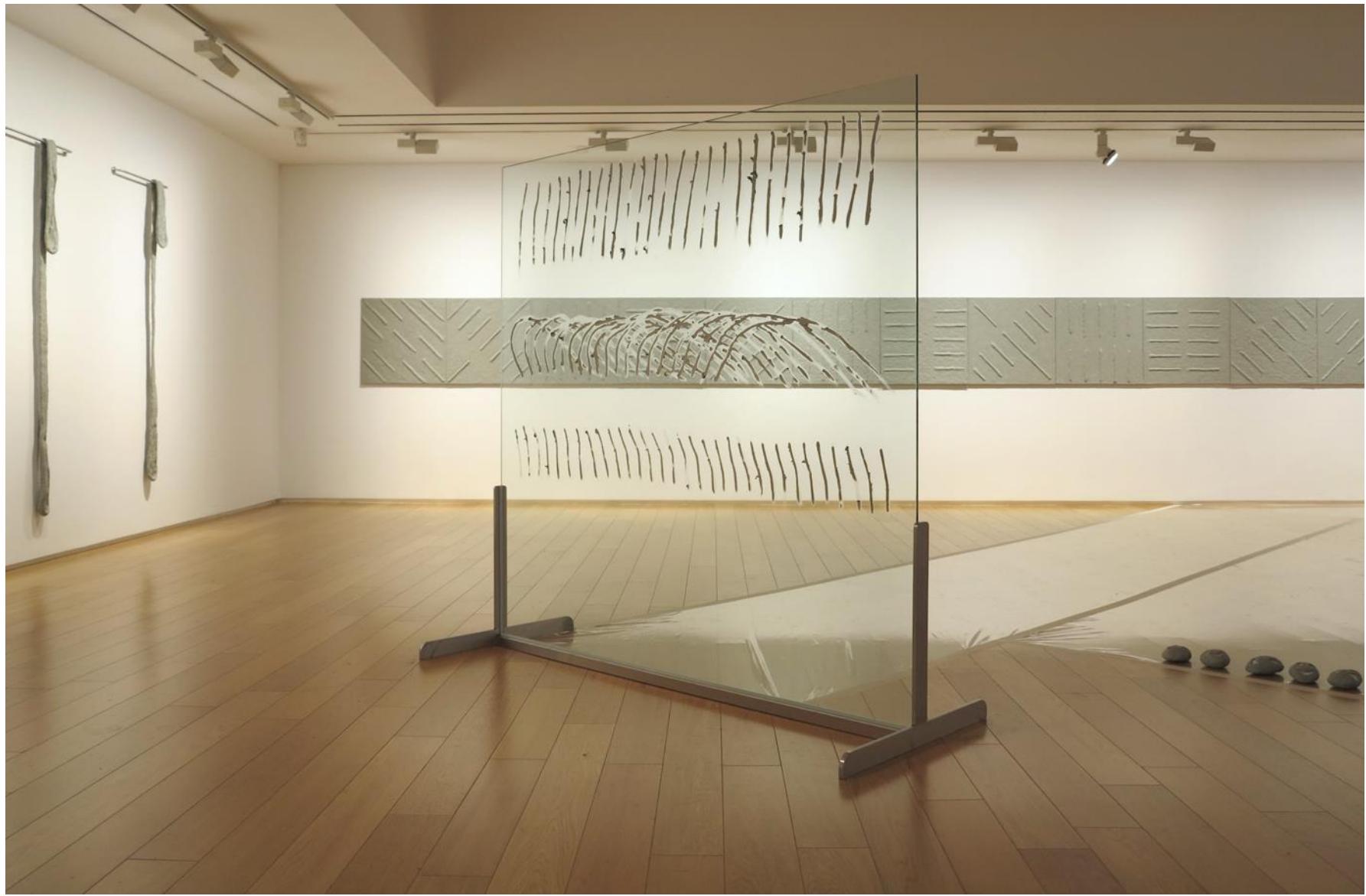


전설 보기 컬렉션 – 귀

3조각, 각 170x6x2(cm), 점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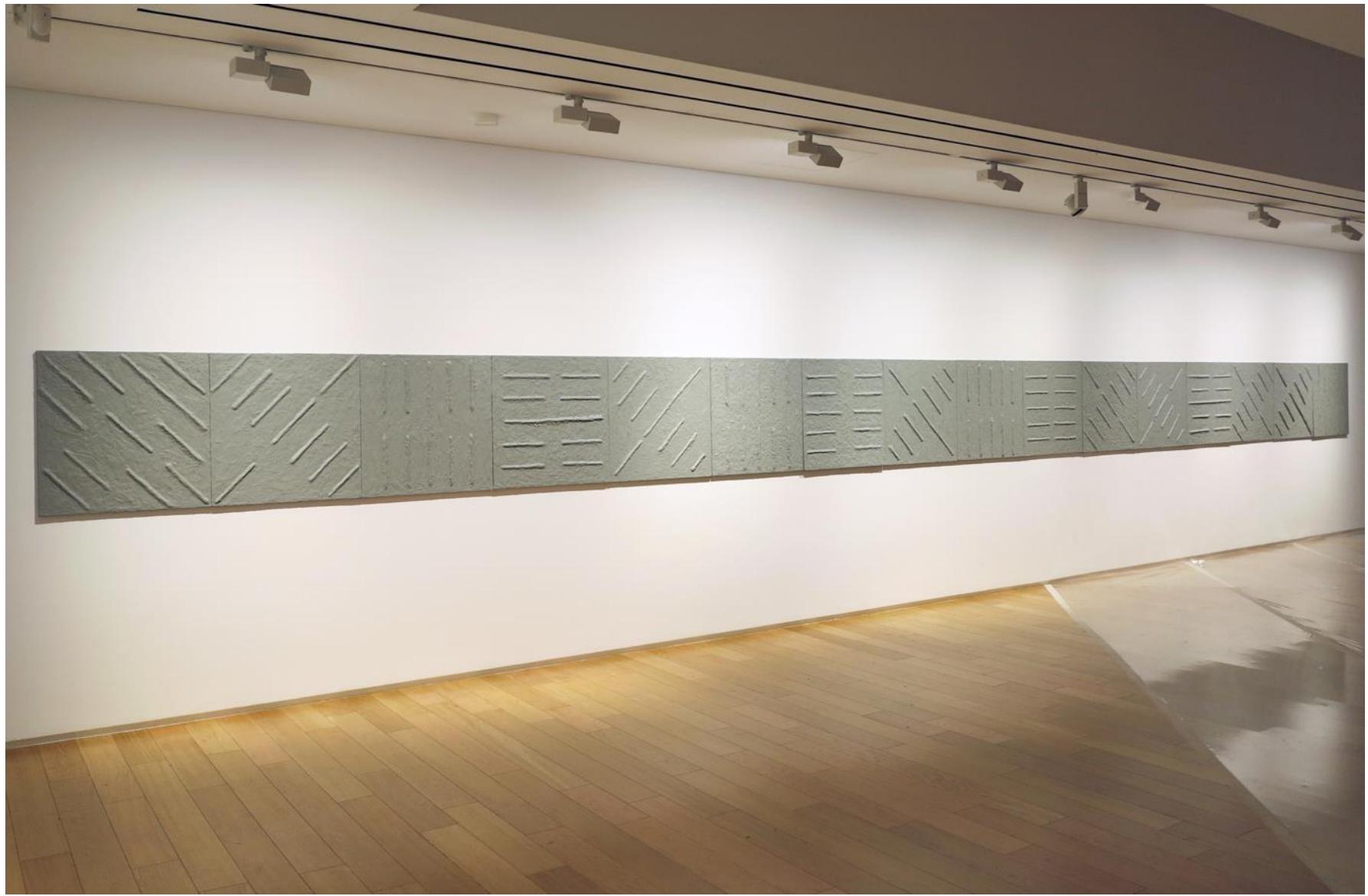
Legendary Collection - Ears

3 pieces, each 170x6x2(cm), Clay, 2017



전설 보기 컬렉션 – 난치기
150x150x60(cm), 점토, 유리, 2017

Legendary Collection - Nan
150x150x60(cm), Clay, Glass, 2017



전설 보기 컬렉션 – 고부조저부조

16조각, 각 60x60x2(cm), 점토, 2017

Legendary Collection - High Relief Low Relief

16 pieces, each 60x60x2(cm), Cla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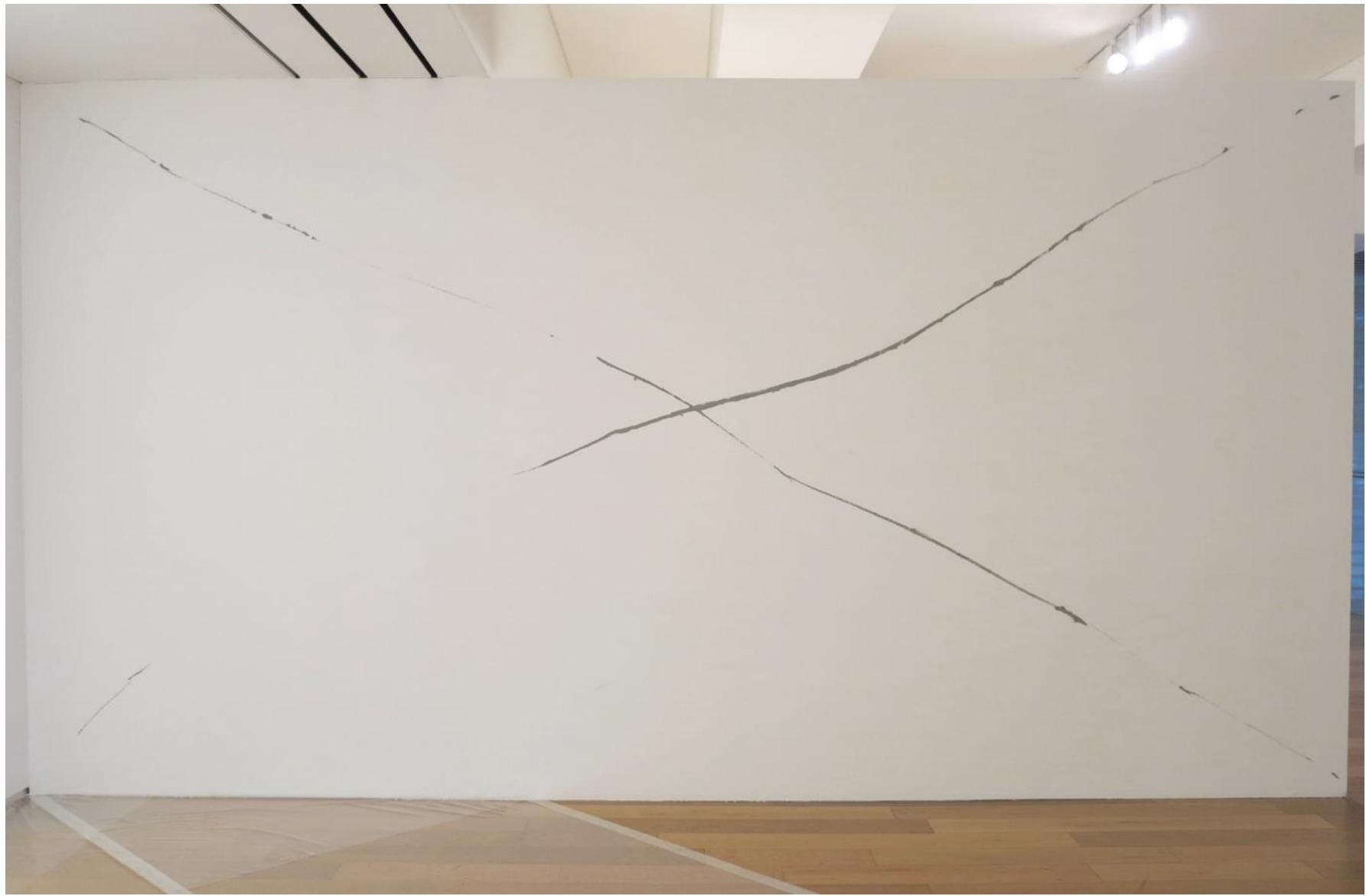


전설 보기 컬렉션 – 만두

5조각, 한 손 크기, 점토, 2017

Legendary Collection – Mandoo

5 pieces, Handy size, Clay, 2017



전설 보기 컬렉션 - X
가변크기, 점토, 2017

Legendary Collection - X
Variable size, Clay, 2017

안녕 휴먼

Hello Human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 아트 센터, 서울
2019.01.16.-02.20.

〈안녕 휴먼〉은 기획 전시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에서 선보인 작업으로, 전시와 전시장을 바닥 삼아, 자라나거나 머물거나 보고 보여지는 조형의 유기적인 모임이다.

곁에 두는 글*

나의 친구는 눈으로 깊이를 확인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는 스스로 세면대를 찾지 않으며, 오를 수 있는 언덕과 포개지는 곡면과 온기와 위기감으로 늘 놀라운 발견을 한다. 향과 농도를 궁금해 하고, 알고 있는 식감과 달음질을 견주어 보곤 한다. 입에 넣을 수 있는 것, 물고 부술 수 있는 것, 내장 만큼 뭉쳐 낼 수 있는 것을 세심히 선별하고, 달려들거나 돌아선다. 원한다면, 약한 몸을 떨며 희미한 소리를 내뱉는다. 그리하면, 애정 어린 이불이나 친구의 품이, 태어나듯 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께와 질감과 허벅다리의 압력을 바닥 삼아 제 몸을 알아챈다. 바닥은 늘 가깝다.

안녕 휴먼? (반가워, 나도 휴먼이야!)

"미터법을 제정할 당시, 거리의 기준을 지구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구 적도에서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0,000km, 이 거리의 4배인 지구 전체 자오선 길이인 40,000km를 기준으로 하는 미터법이 제정되었다. 전체 자오선 길이가 아닌, 적도에서 북극점까지 거리를 표준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1790년)의 기술 수준으로 남반구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리적으로 1m는 적도에서 극점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이 되었다. 초기 1m의 표준원기는 금속 물질로 제작했으나, 금속의 특성상 온도와 습기 등 환경 따름 미세한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고 1983년 이후, 진공에서 빛이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부른다."

너 몇 미터더라.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두산아트센터, 서울)의 도록에 실은 김 대환의 글 일부를 발췌하였다.



안녕 휴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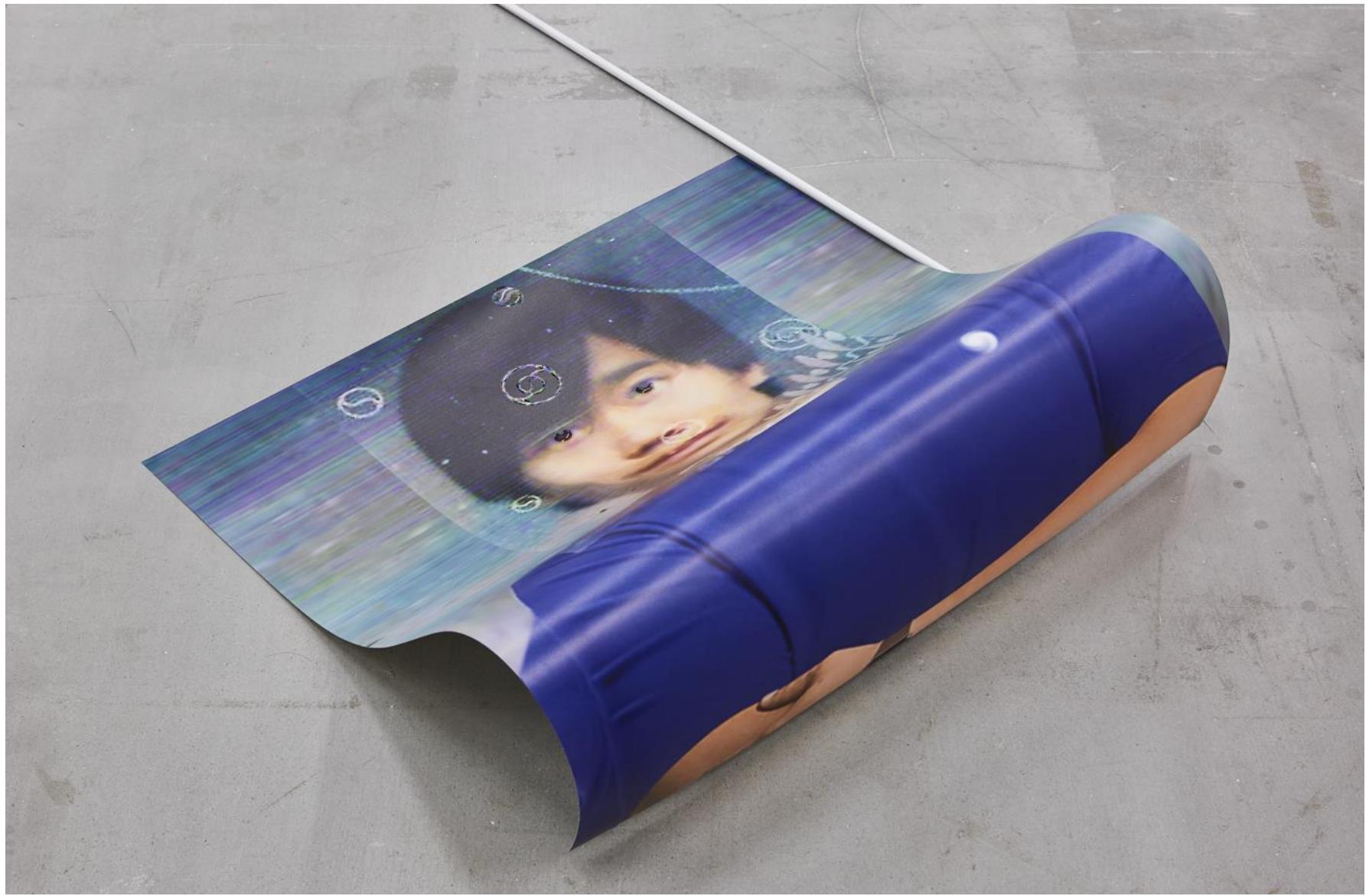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설치 전경,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아트센터, 서울, 2019.01.16.-02.20.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Installation view, 「Your 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 Doosan Art Center, Seoul, Jan. 16. - Feb. 20. 2019.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설치 전경,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아트센터, 서울, 2019.01.16.-02.20.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Installation view, 「Your 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 Doosan Art Center, Seoul, Jan. 16. - Feb. 20. 2019.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설치 전경,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아트센터, 서울, 2019.01.16.-02.20.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Installation view, 「Your 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 Doosan Art Center, Seoul, Jan. 16. - Feb. 20.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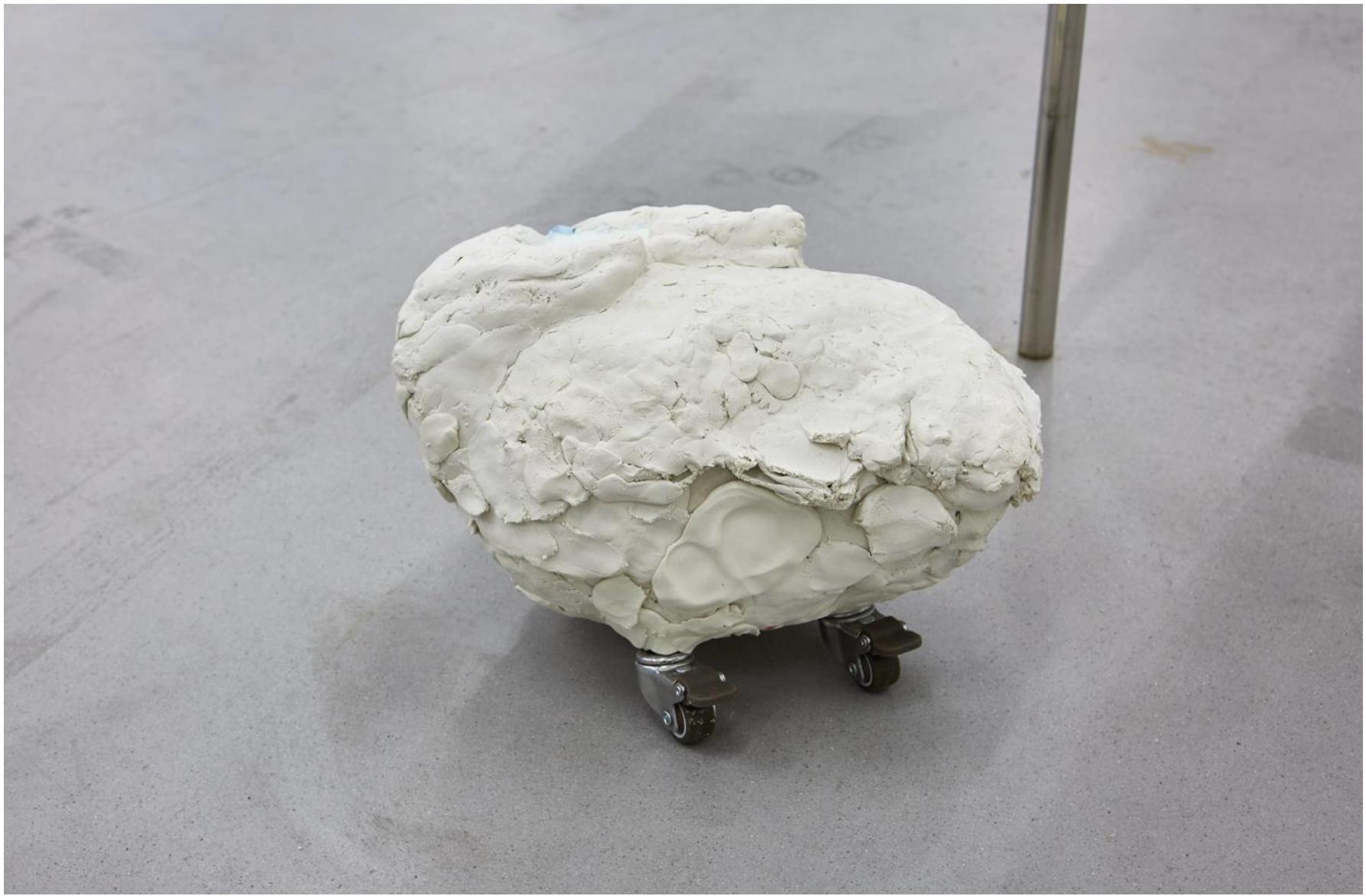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안녕 휴먼

가변 크기, 점토, 나무, 적동, 파이프, 매직-펜, 이미지프린팅, 2019

Hello Human

Variable size, Clay, Wood, Copper, Pipe, magic-Pen, Printed Image, 2019

Detail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Wash3's Face vs Scaling

「장르 알레고리-조각적」
토탈 미술관, 서울
2018.11.15.-12.20.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은 기획 전시 「장르 알레고리-조각적」에서 선보인 작업이다. 하루 세 번 얼굴을 씻고 거울을 확인하는 습관을 조각적 자가 진단(Self diagnosis)법으로 풀어 내어, 익명의 조각가가 바위에서 상(像)을 찾아내듯, 자신이 존중 가능한 자신의 테두리로 깎아내거나 쟁폭시키는 상상을 해본다.

세면

하루 세 번 안면을 확인한다. 각 눈에 따른 정면을 정직하게 확인한다. 이빨이 안전한지, 눈은 총명한지, 피지가 도드라지지는 않은지. 날숨의 향을 정돈하고 들숨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은 확인해야한다.

눈이 눈썹과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코는 여전하고요, 입술의 경계를 그릴 수 있나요, 턱과 귀는 어떻게 이어져 있나요, 머리카락이 충분히 좋은 곳을 가지고 있나요, 제거해야 할 것이 있나요, 생채기는 잘 회복되고 있나요, 아까 지었던 표정과 앞으로 만들 기울기, 근육의 결, 피부의 색, 물기, 광택, 장신구들. 손을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고, 화면의 깊이를 이곳에서 보고 만지고 다시 보면서 위치 점을 가늠한다. 저곳이 여기이길 바란다.

한 동안 만드는 표정을 책임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 좋은 세면을 했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는 탄력으로 입꼬리를 옮겨 조금 전 확인했던 좋은 미소를 완성한다. 아직은 오래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한다.

(vs glossy~)

고갈된 상상을 새로운 기분으로 채워 넣기 위해 세면대 앞에 다시 선다. 발뒷꿈치를 조금 들어 올려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긴다. 팔의 길이에 알맞은 지지대. 적당한 시간과 어울리는 자세.

(vs kuros~)

어느 위치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인물을 담아두기 위해 정면과 측면, 대각의 후면까지 준비한다.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빠르게 다음 세면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조금 물러서서 허벅지까지 담는다.

(vs contrapposto~)

(중략)

무릎과 성기와 명치와 눈 그리고 거인이 몇 미터*더라.

*미터법을 제정할 당시, 거리의 기준을 지구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구 적도에서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0,000km, 이 거리의 4배인 지구 전체 자오선 길이인 40,000km를 기준으로 하는 미터법이 제정되었다. 전체 자오선 길이가 아닌, 적도에서 북극점까지 거리를 표준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1790년)의 기술 수준으로 남반구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리적으로 1m는 적도에서 극점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이 되었다. 초기 1m의 표준원기는 금속물질로 제작했으나, 금속의 특성상 온도와 습기 등 환경 따른 미세한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고 1983년 이후, 진공에서 빛이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부른다.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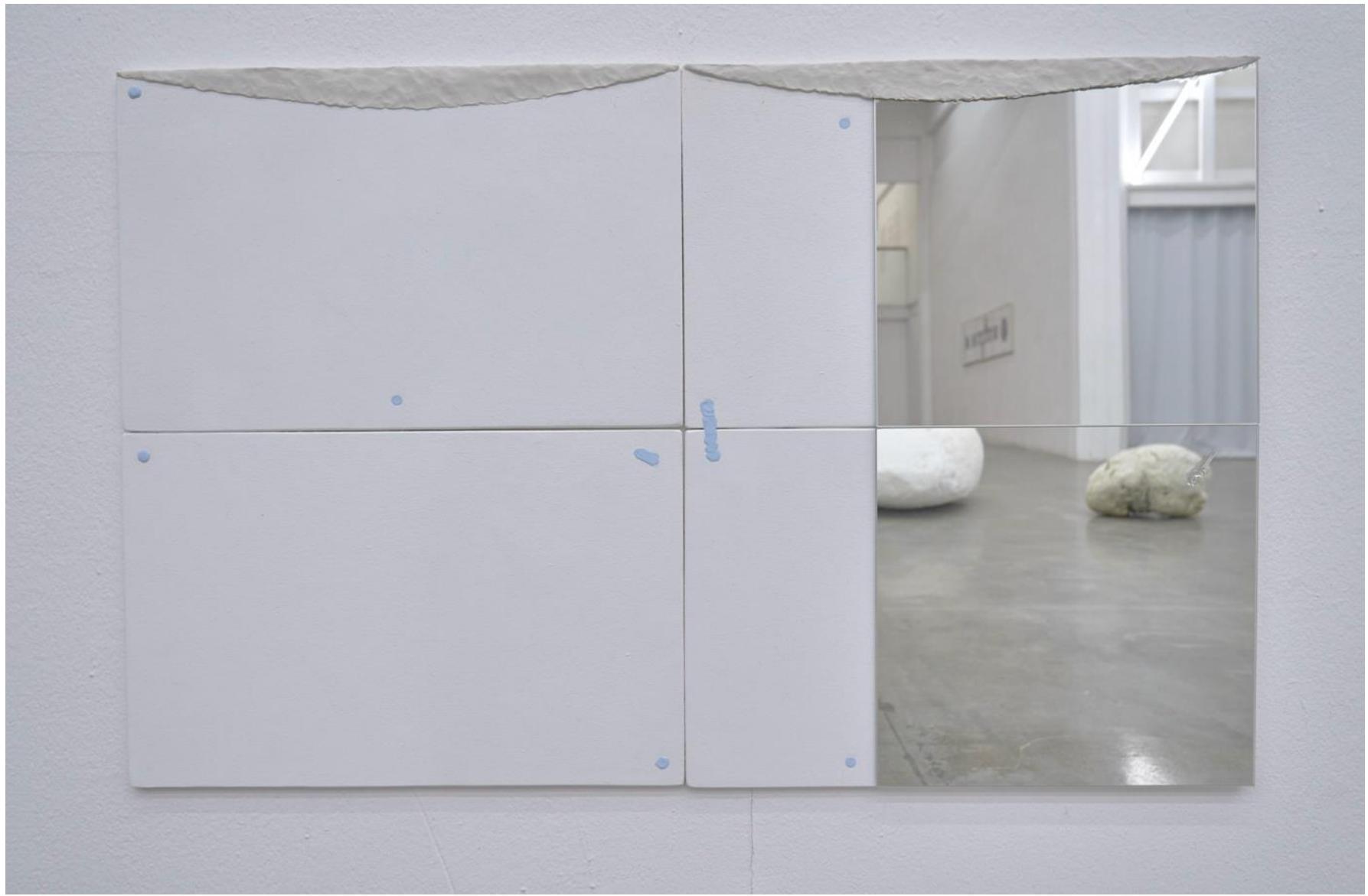
45x45, 90x60, 150x225(cm), 점토, 나무, 거울, 2018

설치 전경, 「장르알레고리-조각적」, 토탈미술관, 서울, 2018.11.15.-12.20.

Wash3's Face vs Scaling

45x45, 90x60, 150x225(cm), Clay, Wood, Mirror, 2018

Installation view, 「Genre Allegory - The Sculptural」, Total Museum, Seoul, Nov. 15. - Dec. 20. 2018.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45x45, 90x60, 150x225(cm), 점토, 나무, 거울, 2018

Wash3's Face vs Sc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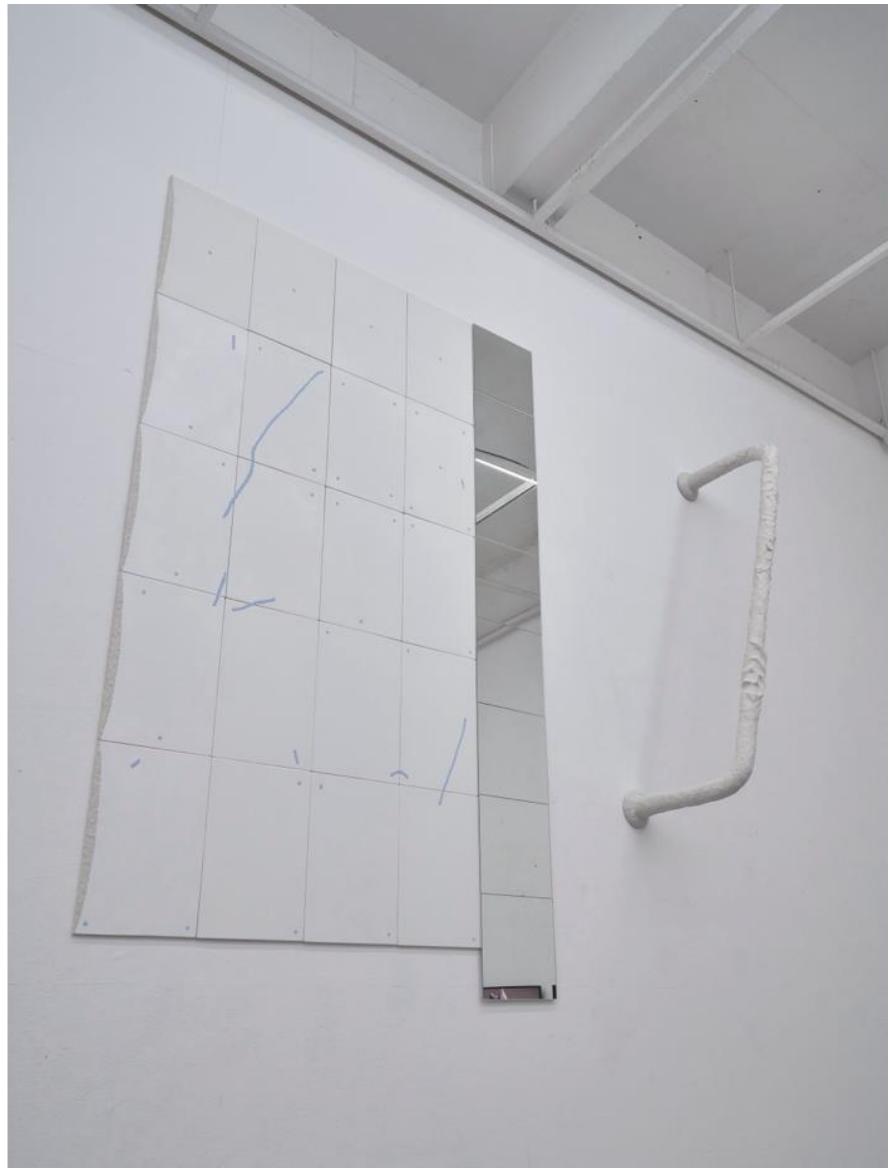
45x45, 90x60, 150x225(cm), Clay, Wood, Mirror, 2018

Detail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45x45, 90x60, 150x225(cm), 점토, 나무, 거울, 2018



Wash3's Face vs Scaling

45x45, 90x60, 150x225(cm), Clay, Wood, Mirror, 2018

Detail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45x45, 90x60, 150x225(cm), 점토, 나무, 거울, 2018



Wash3's Face vs Scaling

45x45, 90x60, 150x225(cm), Clay, Wood, Mirror, 2018

Detail



워시3의 얼굴 대 스케일링

45x45, 90x60, 150x225(cm), 점토, 나무, 거울, 2018



Wash3's Face vs Scaling

45x45, 90x60, 150x225(cm), Clay, Wood, Mirror, 2018

쉿, 원근법인 나

Shhh, I'm Perspective

「정물화전」
시청각, 서울
2019.05.10.-06.30.

〈쉿, 원근법인 나〉는 기획 전시 「정물화전」에서 선보인 작업이다. 기획의 제목과 같이 '정물화로 부르기로 한 어떤 것'의 시점과 시제를 탐구한다. 작품을 통해, 눈의 장난감이나 축소된 세계의 '보는 기술'인 옵아트(Optical Art)에 대한 관심에 이르며, 극단적으로 오늘의 '정물화'를 밀어붙인다. "반려동물이 쑥 들어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목-어깨선"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물화에서의 위치-사건-원근법의 문제를, 멈춰 있으나 동작 변경 가능해보이는 입체 구조물로 만들어낸다.

(중략)

지난한 사연을 꼭꼭 눌러 담은 이동식 가방(캐리어)의 가능-성-능과 그의 껍데기 패턴을 이어 그리는 정물 그림인 조각을 만든다. 고대인의 벽화 그림부터 세잔느의 산등성이를 지나, 미래파의 강아지를 떠올려보는 동시에, 미술 학원의 첫 시간, 이젤 앞에 앉은 어리숙한 학생의 여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의 바퀴 달린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도회적이며, 미래적이기까지 한 그의 가방은, 아득한 표면 뿐이다. 그것은 '빠르고 견고하다!' 외치고 있다. 힘 없는 상상은 반짝이는 표면 패턴을 통과할 수 없으며, 이때, 요령 것 꼼수를 부려보는 거다. 미래의 만남을 끌어들여 이미 겪은 일로 딛어내거나, 끝을 모르는 선형 위에 바퀴를 걸어 굴려보내는 일을 생각한다. 익숙하고도 익숙해서 거의 아무 마찰도 일으키지 않는 미끈한 장식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이의 가방을 상상한다.

투시도법에 대하여

투시도법은 테이블을 바탕 삼아 화면을 점(눈)과 점(소실)으로 이어 대상을 도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작업자들에 의해 연구, 발전해왔는데, 그 중 정물화는 투시도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테이블에서 다양한 사례로 연구되었다. 호쿠사이의 수박도와 세잔느의 사과, 박이소의 밥상까지 온갖 의미와 연결이 믿음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다.

원근법에 대하여

원근법은 점의 관찰자가, 앞과 뒤를 위치로부터 판단, 추측하는 기술이다. 다가가고 물러서며 지나치고 무시하는 일에 실망하지 않으며 앞과 뒤를 판가르는 용감한 모험이자 도전이다. 도래하는 의심과 연결의 실패. 걸음으로 달성하는 정면은, 화면은 못 되고, 늘 정면이다.

캐리어*에 대하여

캐리어는 정물화를 입고, 닫은 공간이다. 기꺼이 화면을 자랑하는 건실함과 속지 않는 적극성을 지녔다. 옵티컬 일루전을 표방하는 정면은 믿음직스러운 사랑거리가 되어주며, 언제이고 수만 키로를 접어 달릴 기분을 기분으로 전부 소모하곤 말끔히 잊은 척 구석에 처박힌다. 손잡이와 3단 분할, 높이와 수명이 길지 않은 바퀴 몇 개와 탄소 섬유 그리고 탄력적인 옵-아트.

*캐리어(carrier)는 대표적인 콩글리시(korean-english)이며 일반적으로 러기지(Luggage), 배기지(Baggage), 슈트케이스(Suitcase), 트렁크백(trunk bag)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쉿, 원근법인 나

140x45x100(cm), 펼쳐서 보이기, 캐리어, 나무, 석고, 알루미늄, 2019

설치 전경, 「정물화전」, 시청각, 서울, 2019.05.10.-06.30.

Shhh, I'm Perspective

140x45x100(cm), carrier, wood, gypsum, aluminum, 2019

Installation view, 「tart」, Audio Visual Pavilion, Seoul. May. 10. - Jun. 30. 2019.



쉿, 원근법인 나

140x45x100(cm), 펼쳐서 보이기, 캐리어, 나무, 석고, 알루미늄, 2019

Shhh, I'm Perspective

140x45x100(cm), carrier, wood, gypsum, aluminum, 2019

Detail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of a
Friend Who Exhibit**

「Latency : 유선형의 시간들」
플랫폼 엘, 서울
2019.10.05.-11.03.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은 기획 전시「Latency : 유선형의 시간들」에서 선보인 작업으로, 조각 작업 '전시 하는 친구의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2019)'과 부조 작업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다음 느낌(2019)'을 포함한다. 이 두 갈래의 조각은 가변적인 전시 환경을 캐리어에 담아 펼쳐 놓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캐리어 형태의 조각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캐리어에 담길 수 있는 형태의 조각을 꺼내 놓은 상황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 값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시장 안에 독립된 전시장을 구성한다.

안내의 글*

김 대환의 〈전시 하는 친구의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은 가변적인 전시 환경에서 '전시 하지 않는 전시장'을 자처하는 조형 작업이다. 전시라는 특수한 환경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시장 안에 독립된 전시장을 구성한다.

“〈전시 하는 친구의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은 전시장(1)의 전시(2)를 친구(3)로 삼아(4) 다룬다. 친구인 전시-너(5)와 전시 하지 않기로 하는 전시장(6)을 자처하는 안(7)과 밖(8)을 가진 전시하는 친구 만들기(8)이다.”

김 대환의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다음 느낌〉은 안과 밖을 가진 조각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삼는 일을 딛고, '전시 하지 않는 전시장' 내부에 비치하는 조각의 복제 그리고 그 복제의 복제를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작업이다.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다음 느낌〉은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음 느낌〉의 복제(10)이며,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음 느낌〉은 〈전시 하는 친구의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의 안(7)에 보관(11)하는 조각(12)의 복제(10)이다.”

*「Latency : 유선형의 시간들」(플랫폼엘, 서울) 도록의 김 대환 작품 설명 글의 일부를 발췌. 각주는 내용 전달시 삭제 하였다.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

45x30x95(cm), 아메리칸투어리스터, 점토, 알루미늄, 석고, 레진, 비닐, 활동, 실, 나무, 2019

설치 전경, 「Latency : 유선형의 시간들」 플랫폼엘, 서울, 2019.10.05.-11.03.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of a friend who exhibit

45x30x95(cm), American Tourister, Clay, Aluminum, Gypsum, Resin, Vinyl, Copper, Threads, Wood, 2019

Installation view, 「Latency : Streamlined Times」, Platform-L, Seoul. Oct. 05. - Nov. 03. 2019.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

45x30x95(cm), American Tourister, 점토, 알루미늄, 석고, 레진, 비닐, 활동, 실, 나무, 2019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of a friend who exhibit

45x30x95(cm), American Tourister, Clay, Aluminum, Gypsum, Resin, Vinyl, Copper, Threads, Wood, 2019



전시하는 친구의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

45x30x95(cm), American Tourister, 점토, 알루미늄, 석고, 레진, 비닐, 활동, 실, 나무, 2019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of a friend who exhibit

45x30x95(cm), American Tourister, Clay, Aluminum, Gypsum, Resin, Vinyl, Copper, Threads, Wood, 2019

Detail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다음 느낌

3 조각, 25x45x3(cm), 알루미늄, 2019

The next-next feeling of a friend who exhibits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3 peices, 25x45x3(cm), Aluminum, 2019



전시 하지 않는 친구의 전시장을 전시 하는 친구의 다음 느낌

3 조각, 25x45x3(cm), 석고, 나무, 글루, 2019



The next feeling of a friend who exhibits an exhibition of a friend who doesn't exhibit

3 pieces, 25x45x3(cm), Gypsum, Wood, Glue, 2019

A.아파렌시스와 미소 펑-퐁
Smiley P.P. With A. Afarensis

『Shadowland』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21.03.12.-04.08.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은 기획 전시 「Shadowland」에서 선보인 작업이다. 익명의 고대인을 추적하고 추리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따라, 부조와 환조, 캐스팅과 공상을 그려본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ustralopithecus Afarensis*)*의 초상을 제작하고 포토그래마트리(Photogrammetry) 기술을 적용하여 재-조형한다. 그 결과 도출 해낸 알루미늄 거푸집이 34개, 그것에서 떼어낸 석판이 34개이다. 뒤어 나온 쪽과 파인 쪽을 빙 둘러 각각 내측과 외측에 미소 짓는 고대인을 그려 내고 있다. 1층과 2층을 빙글 돌며 그려내는 익명의 고대인1과 1-1은 서로의 그림자를 뜯어낸 듯 닮았고, 또한 닮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닮았으나 닮지 않은 인물 관객이 그들은 찾을 것 이라는 믿음을, 역시 익명인 그들의 옅은 기억속에서 미소로 확인한다.

TIP)

관람 또는 관측 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미소를 발견한) 자신의 지능을 칭찬해보자. 칭찬 받아 마땅한 내가 그린 저 고대인을 마주 보거나 지나쳐 보자. 반쪽 짜리 골반이나 조각난 하악골 위에 그리는 그것의 입꼬리를 추측해보며 어디를 누르고 무엇을 뒤어나오게 만들어야 좋은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다시, 고민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뿌듯하게 떠올리며 애정껏 미소 지어 주자. 그 미소가 다시 나를 향해 미소 지어 줄 것을 나의 공상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보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ustralopithecus Afarensis*)는 약 390만 년 - 290만 년 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으로, 비틀즈의 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에서 따온 Lucy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곤 한다.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설치 전경, 「Shadowland」,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21.03.12.-04.08.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Installation view, 「Shadowland」, Amado Art Space, Seoul, 2021.03.12.-04.08.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설치 전경, 「Shadowland」,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21.03.12.-04.08.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Installation view, 「Shadowland」, Amado Art Space, Seoul, 2021.03.12.-04.08.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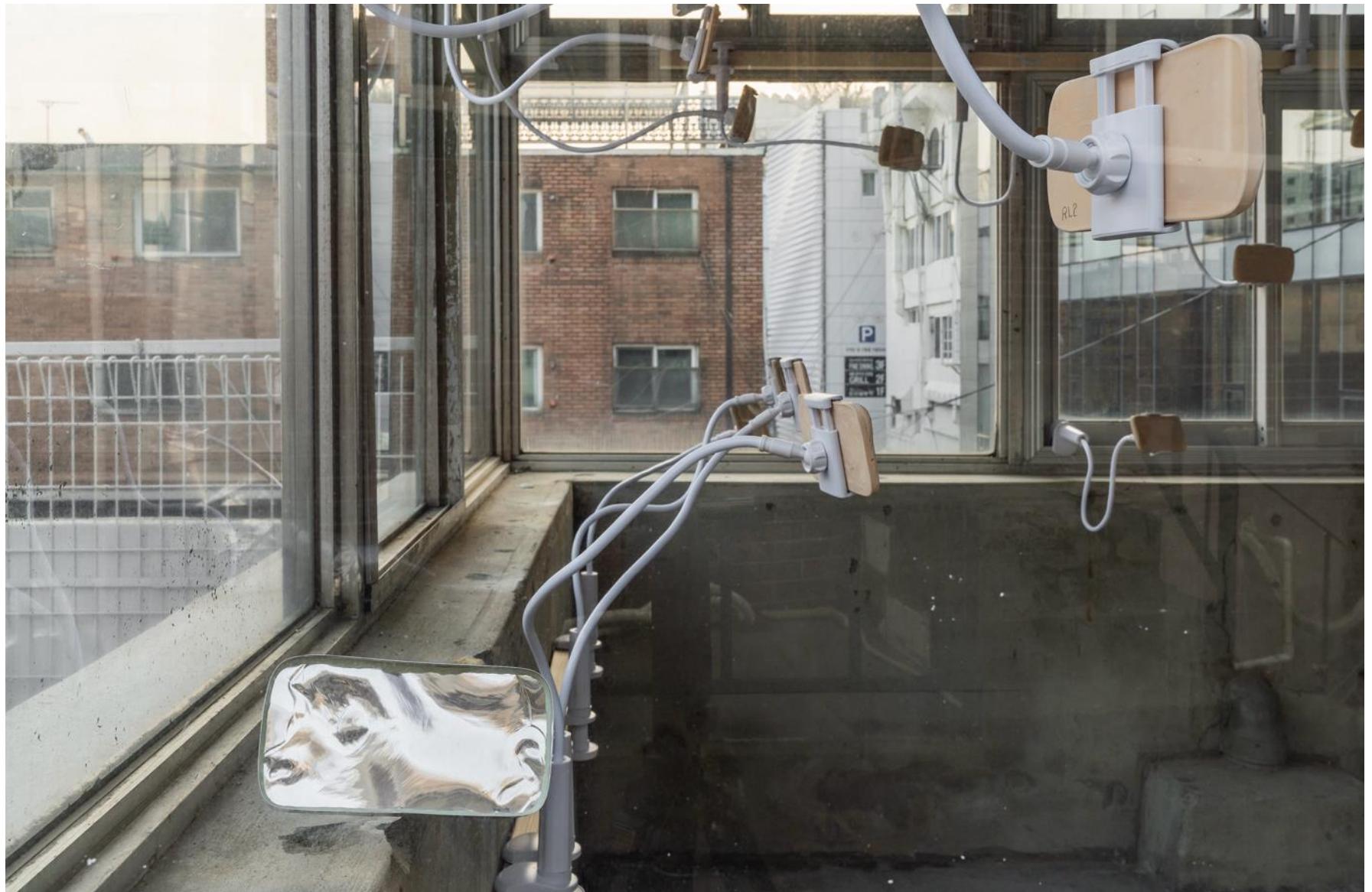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Detail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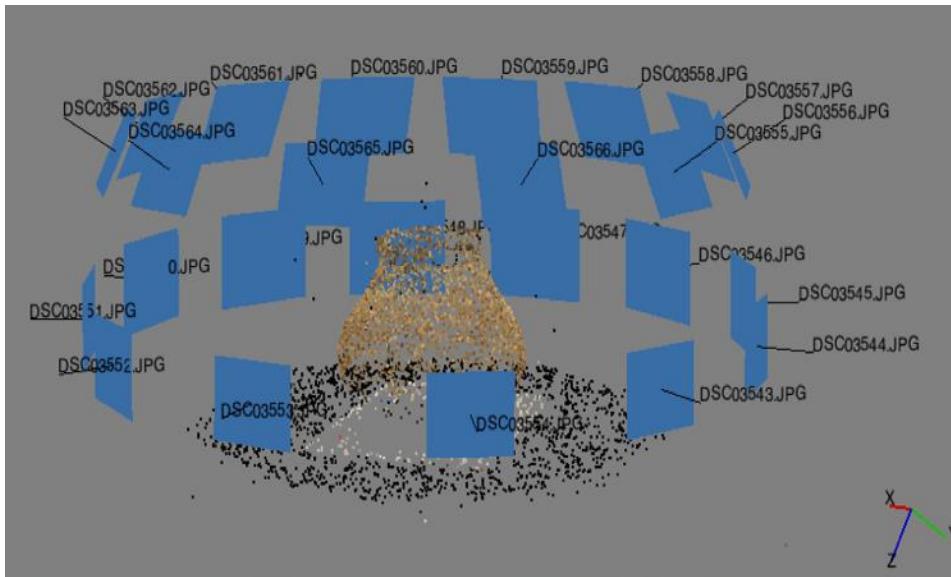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핑-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Detail



A. 아파렌시스와 미소 평-퐁

68 조각, 각 15.3x7.7x1(cm), 석고, 알루미늄, 2021



Smiley P.P. With A. Afarensis

68 pieces, each 15.3x7.7x1(cm), Gypsum, Aluminum, 2021

개 걸음 보기

Watching 'Fucking Walk Hard'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 아트 센터, 서울
2019.01.16.-02.20.

<개 걸음 보기>(9'31")는 온라인 전시 「Open-Source Studio」에서 선보인 영상 작업<개걸음> (8'39")을 보는 영상 작업이다.

개 걸음 인터뷰 보기*

김: 인사는 중요해요. 사람의 일이니까요. 대체로 저의 경우에는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종종 실수투성이 인사가 되곤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재어보며 최선의 테이블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 길이를 떠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꾸려낸 자리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나 자신에게 선사하기로 한 시간을 말끔히 챙겨야지요.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첫 단추입니다.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EBS TV프로그램. 만들어볼까요 中)

(중략)

친하다는 표현을 종종 곱씹어보아요. 어릴 적, 옆 옆집 나와 닮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던 시간을 떠올려보기도 하고요. 늘 어디까지, 얼마만큼 친해져야 친구가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음을 거절당하거나, 내가 믿던 자리가 실은 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해요. 솔직한 친구들이 고맙고. 우리가 어떤 놀이터에서 어떤 별명으로 부르며 지내면 좋을지 고민하던 순간들을 떠올려요.

(중략)

앞서, 전시를 일종의 테이블 꾸리기로 표현했는데, 티테이블부터 제사상까지 많은 셋팅을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전시라는 차림새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효과와 기대도 나름의 짙은 이해로 그려볼 만하고요. 그래서 전시를 마주 할 때면 무엇보다 동선을 살펴요.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 가늠해보고, 밤이든 눈이든 옮기는 거예요. 더 오래 머무는 구간이 있고 빠르게 지나는 구간이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튕겨져 나오는 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시는 돌아가는 길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동선을 이어가요. 무엇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고, 내가 즐거워 할 수 있는 리듬인지 가늠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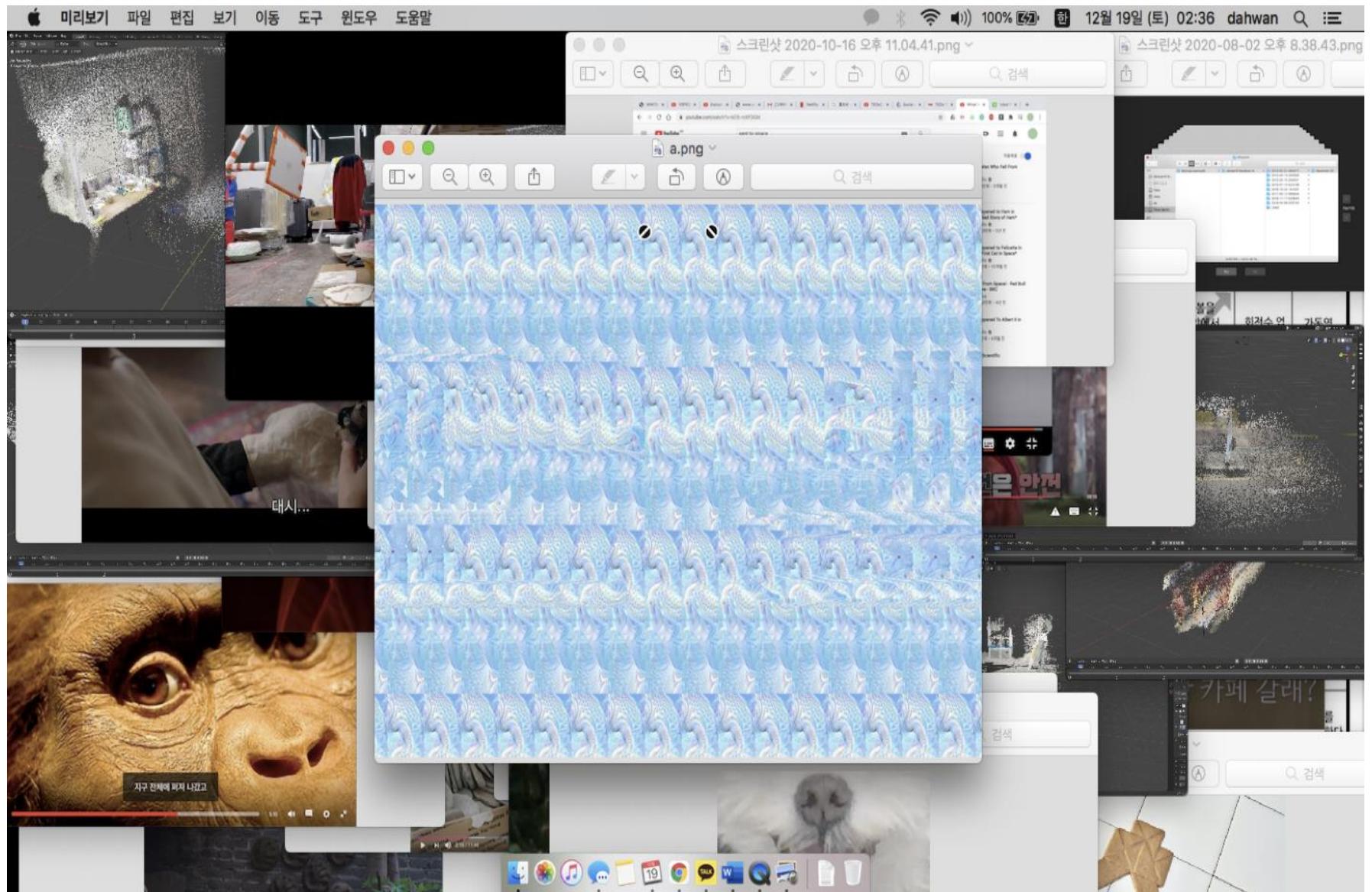
(중략)

펼쳐 보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좋은 일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필연적인 오해를 감당하면서 소비의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게 저마다의 필요가 겹쳐져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도 그들을 근사하게 채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시장과 전시는 이 과정을 튼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기대만큼의 환경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기대가 꺾이는 일이 두려워서 이미 여러 차례 접어 두는데도 자주 실패를 겪는 편이예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할 때, 펼치는 일과 보이는 일 자체에 대해서 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만 했어요. 어디까지 펼칠 것인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줄 건지.

(중략)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흙으로 빚어 만들었던 만두 조각을 보석(에메랄드, 오팔, 포도석, 제스페)을 깎아 만들어보았어요. 이전의 만들기가 비교적 경쾌해서 줄는 이의 손동작 또한 빠르게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이번의 만들기는 재료부터 튼튼하고 질어서 깎아 만드는 과정과 바라보는 일과 줄는 일까지 비교적 느리고 오래 머물기 좋은 만두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멋진 빛깔의 지구를 깎아 빚은 만두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었어요.

(후략)



개 걸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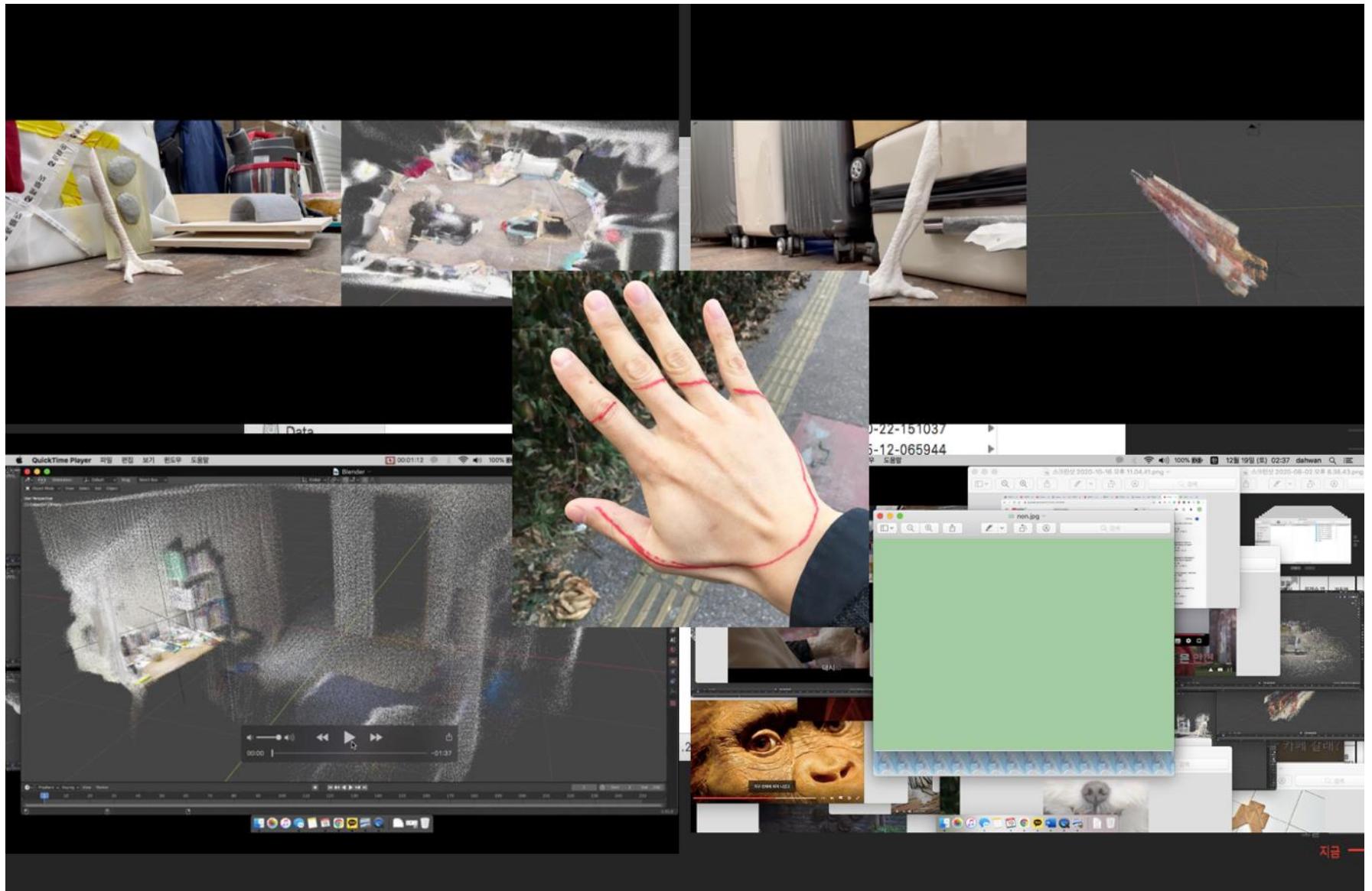
(개 걸음, 비디오, 8'39", 2020)을 보는 비디오, 9'31", 2020

온라인 전시, 「Open-Source Studio」,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20.12.04.-2021.01.29.

Watching 'Fucking Walk Hard'

(Fucking Walk Hard, video, 8'39", 2020) video, 9'31", 2020

online view, 「Open-Source Studio」, SeMA NANJI Residency, Seoul, Dec. 04. 2020. - Jan. 29. 2021.



개 걸음 보기

(개 걸음, 비디오, 8'39", 2020)을 보는 비디오, 9'31", 2020

온라인 전시, 「Open-Source Studio」,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20.12.04.-2021.01.29.

Watching 'Fucking Walk Hard'

(Fucking Walk Hard, video, 8'39", 2020) video, 9'31", 2020

online view, 「Open-Source Studio」, SeMA NANJI Residency, Seoul, Dec. 04. 2020. - Jan. 29. 2021.

만두

Mandoo

한강, 서울
2015.-2016.

<만두>는 2015년부터 2016까지 매달 한 번, 총 13회 치른 퍼포먼스 활동에서 선보인 작업이다. 손에 쥐기 좋은 모양으로 둥근 만두를 빚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것들을 넣어두었다. 미소는 어느 나무 인형의 양심을 닮았고, 반짝이는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게 좋겠다. 한강에 가면 뭐든 던지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제갈지미니*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책략가로, 만두를 빚은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있다.

지미니크리켓은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조언자이자 양심이다.

만두는 제갈량이 남만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의식에 사용되었다.

디즈니의 지미니 역은 많은 작품에서 다른 이름으로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머리 대신 밀가루 반죽으로 모양을 만들고 쇠고기, 양고기, 야채를 섞어 공물로 바쳐 노여움을 달랬다고 한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해당 시공간과 함께 유난히 듣기 좋은 소리로 묘사된다.

밀과 고기, 야채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배경을 생각하며 만두를 빚는다.

교자 만두의 한자는 등근 구슬 고, 아들 자, 남만 만(또는 속일 만), 머리 두. 교자상은 사귈 교, 아들 자, 평상 상.

뒤돌아보면 돌이 되기도 하고 돌아킬 수 없기도 하고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돌은 50개, 나머지 50은 수면, 물의 피부에 비추어 채운다. (아주 약간의 반사 유실이 하나 정도를 비운다.)

인터뷰 중에서,

(전략)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초-거-신 같은 걸 상상해보곤 해요. 그러다가, 그보다는 지구가 만든 굴곡을 살피고, 그 위를 걷는 나와 개미와 닭이 어떤 색깔 지층에 잠길까 생각해보곤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상이 가능할 수 있는 바탕을 다시 가늠해보기도 하고,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뭘 만들 수 있는지 봐요. 이런 길 위에서 찾은 조각가 중 한 인물이 제갈량이었고, 그의 만들기를 따라 <제갈지미니>를 빚었어요. 훌륭한 만듦새로 풍랑을 달래는 일. 밀가루를 뭉치는 손이 하늘에 닿고 제 그릇에 놓이는 일은, 만들기가 내 손바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엔 만두를 내 위장으로. 든든한 오후를 지내고 다음날엔 내 몸을 몰드로 쓰고. 그 사이 분리수거를 잘했는지, 화를 무례하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사람으로 사는 일을 잊지 않는 만들기를 하기 바라요.

(후략)

* '제갈지미니'는 제갈량의 성씨 '제갈'과 지미니 크리켓의 이름 '지미니'을 합쳐 만들었다.



만두

한 손 크기, 점토, 필름, 노을 지는 한강, 2015-16

Mandoo

Handy size, Clay, Film, Han-river with Sunset, 20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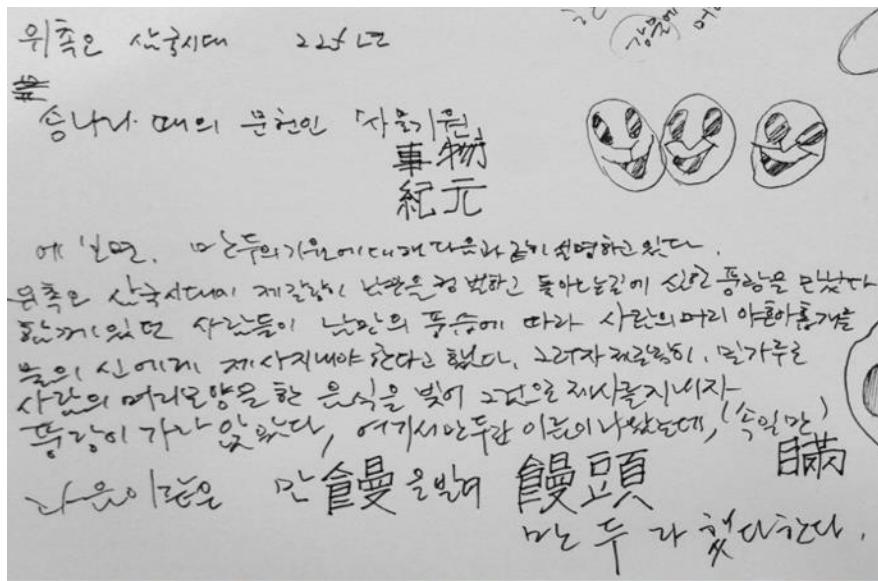


만두

한 손 크기, 점토, 필름, 노을 지는 한강, 2015-16

Mandoo

Handy size, Clay, Film, Han-river with Sunset, 2015-16



만두

한 손 크기, 점토, 필름, 노을 지는 한강, 2015-16

Mandoo

Handy size, Clay, Film, Han-river with Sunset, 2015-16

수제비

Sujebi

『수제비대여』
웨스틴 조선 라운지, 서울
2021.06.20.-07.23.

〈수제비2〉는 프로그램 「수제비대여」에서 선보인 작업으로, 손과 수면을 견주어 바라보던 강변의 추억을 곁에 두고 빛어낸, 쥐거나 던지기 좋은 수제비이다. 배면부터 차례로 철운석(Kitkijärvi, Pajala, Sweden), 침향(沈香), 벽도목(霹桃木: 벼락을 맞은 복숭아 나무), 경면주사(鏡面朱砂), 인청동, 용각류 화석(중생대 쥐라기, Utah/Colorado, U.S.A.), 에메랄드(콜롬비아), 청금석(브라질)을 쌓아 빛었다.

수제비대여*의 초대인사

안녕하세요. 김 대환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과 7월 중(1)에 「수제비대여」(2)라는 이름의 전시(3)를 마련합니다.

직접 들고 이동(4)하거나 펼쳐(5) 살펴보기 좋은 접이(6)식 〈수제비1〉(7)을 일정 기간(8) 관객(9)에게 대여(10)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제비1〉은 허리와 무릎을 굽혀 손과 물결에 꼭 들어 맞는 모양을 찾아 해매던 몇 날들을 돌아보며 만들었습니다. 음(ㄱ),

(1) 2021년 6월20일부터 7월23일 까지

(2) 〈수제비대여〉 (Sujebi Rental | 참여작가/김대환, 기획/권순우, 디자인/신신, 제작도움/구재희, 염철호, 후원/서울문화재단, 장소협조/웨스틴조선호텔서울)

(3) 展示 (00를 펴서 보임)

(4) 무게 9,800g, 손잡이 2개, 바퀴8개

(5) 펼쳤을 때 1200mm*1350mm*150mm

(6) 접었을 때 160mm*4200mm*5700mm

(7) 〈수제비1〉 (접이식 | 호두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개다래나무, MDF, 세이지잎, 개박하잎, 스테인레스, 아연, 활동, 인청동, 알루미늄, 자석, PVC, 인조스웨이드, 반려견용바닥재, 리본, 면끈, 가공접토, 제스모나이트, 초경석고, 밀립, 물제비꽃오일, 수채 | 2021)

(8) 회당 총 대여 기간은 4-5일

(9) 회당 1팀(최대 2인 가능)

(10) 대여 시 양도 및 반납 취급 유의 사항에 상호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00) 〈수제비2〉 (喟 둘 | 철질운석, 인청동, 에메랄드, 청금석, 용각류화석, 경면주사, 벽도목, 침향목, 송진)

(ㄱ) 구부러진 모양을 따라 허리와 무릎을 부르면, 졸랑졸랑 따르는 걸음이 그려놓은 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손에 쥔 것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꺼내서 던져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전부 잊었다는 거짓 기억을 빚고. 마침내 잊을 수 있게 되면, 어느덧 떠오르는 표정을 청결히 남기는 세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대화를 떠올려봅니다. 근사한 테이블이 함께 있습니다. 깜빡 잊을 만큼 안락한 의자도 있고, 바닥의 마감도 훌륭합니다. 흥미로운 풍경이 어디에든 있고, 안전한 리듬과 향내, 다과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기분은 자신의 외곽을 풍요롭게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펼쳐 보이는 자리가 좋은 대화의 곁에 등장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지난 여정을 서툴게 소개하는 흥미로운 다과의 일 정도를 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앞선 곳에서 보내는 안부와 한 시간이 넘지 않는 티타임도 마련했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신청 링크를 남깁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환 드림



수제비2

4.5x3x9.5(cm), 철운석(Kitkijärvi, Pajala, Sweden), 침향(沈香), 벽도목(霹桃木), 경면주사(鏡面朱砂),
인청동, 용각류화석(중생대 쥐라기, Utah/Colorado, U.S.A.), 예메랄드, 청금석, 2021

설치 전경, 「수제비대여」, 웨스틴 조선 호텔 라운지, 서울, 2021.06.20.-07.23.

Sujebi2

4.5x3x9.5(mm), Meteorite (Iron, Kitkijärvi, Pajala, Sweden), Agarwood, Peachwood struck by Lightning, Cinnabar, Phosphor Bronze, Fossil of Dinosaur (Utah/Colorado, U.S.A. Jurassic period, Mesozoic Era), Emerald, Lapis lazuli. 2021

Installation view, 「Sujebi Rental」, The Westin Josun, Seoul, Jun. 20. - Jul. 23.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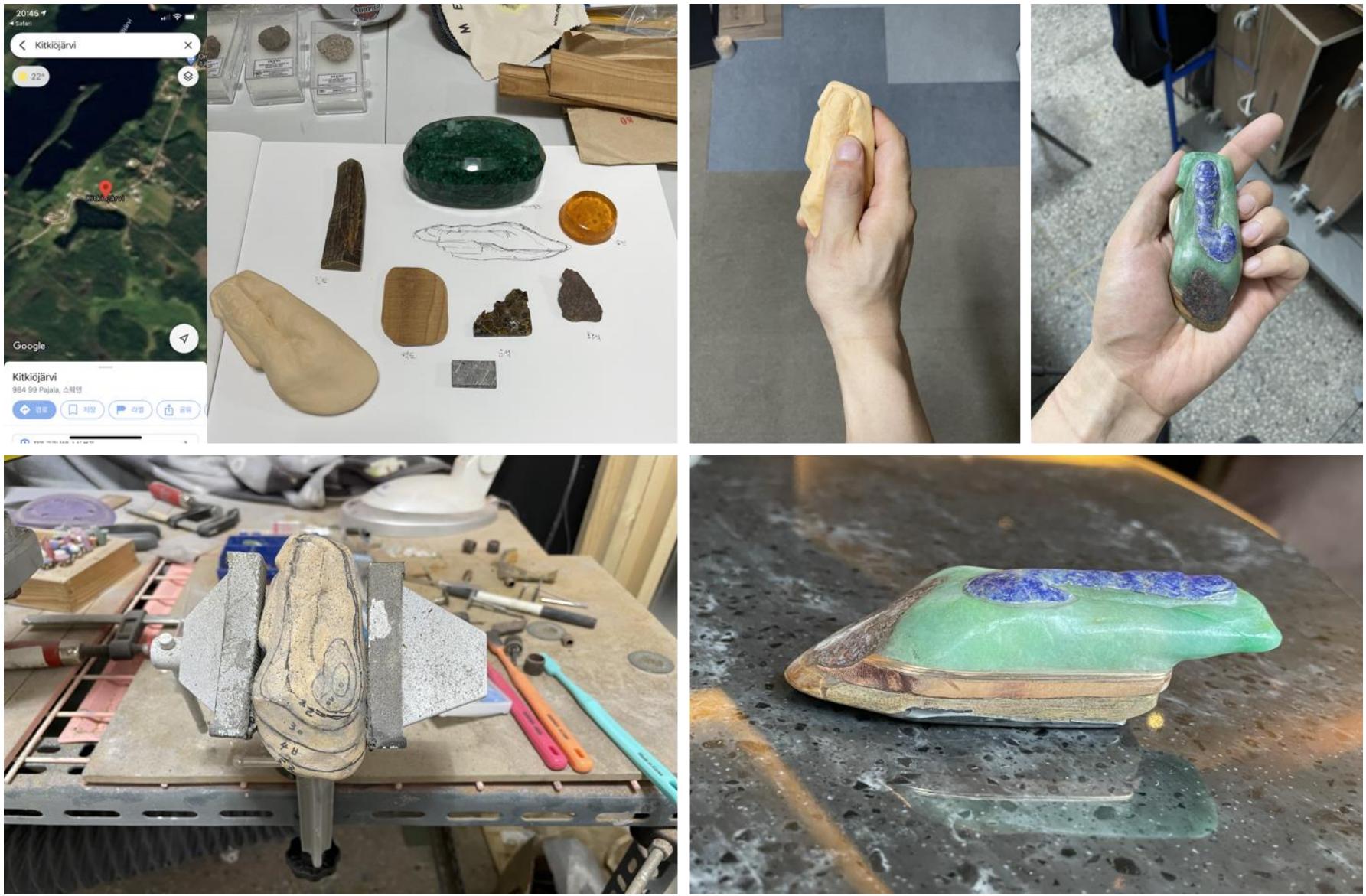
수제비2

4.5x3x9.5(cm), 철운석(Kitkijärvi, Pajala, Sweden), 침향(沈香), 벽도목(霹桃木), 경면주사(鏡面朱砂),
인청동, 용각류 화석(중생 대 쥐라기, Utah/Colorado, U.S.A.), 예메랄드, 청금석, 2021



Sujebi2
4.5x3x9.5(m.m), Meteorite (Iron, Kitkijärvi, Pajala, Sweden), Agarwood, Peachwood struck by Lightning,
Cinnabar, Phosphor Bronze, Fossil of Dinosaur (Theropoda, Utah/Colorado, U.S.A. Jurassic period,
Mesozoic Era), Emerald, Lapis lazuli. 2021

Detail



수제비2

4.5x3x9.5(cm), 철운석(Kitkijärvi, Pajala, Sweden), 침향(沈香), 벽도목(霹桃木), 경면주사(鏡面朱砂),
인청동, 용각류 화석(중생대 쥐라기, Utah/Colorado, U.S.A.), 예메랄드, 청금석, 2021

Sujebi2

4.5x3x9.5(mm), Meteorite (Iron, Kitkijärvi, Pajala, Sweden), Agarwood, Peachwood struck by Lightning,
Cinnabar, Phosphor Bronze, Fossil of Dinosaur (Theropoda, Utah/Colorado, U.S.A. Jurassic period,
Mesozoic Era), Emerald, Lapis lazuli. 2021

C.V.

2014. - 2024.

김 대환 (b.1987)

학력

2019 M.F.A.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입체조형 졸업
2017 B.F.A.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졸업

개인전

2024
『예언대회상』, (together)(together), 서울
2023
『쉬운 길』, 413BETA, 서울
2019
『안녕 휴먼?』,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2018
『양말이피티』, 취미가, 서울

주요 그룹전

2024
『Dream Screen』, 리움, 서울
2021
『Shadowland』,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20
『Open-Source Studio』,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9
『Latency : 유선형의 시간들』 플랫폼엘, 서울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두산아트센터, 서울
『정물화전』, 시청각, 서울
2018
『장르알레고리-조각적』, 토탈미술관, 서울
2017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네 눈동자 속에 누워있는 잘 생긴 나』,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Shame on you』, 두산갤러리뉴욕, 뉴욕
2016
『서울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4
『주문수량』, 오픈베타공간반지하B½F, 서울

기타

2020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14기 입주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Dahwan Ghim (b.1987)

Education

2019 M.F.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ine Art, Seoul, Korea
2017 B.F.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ine Art,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24
『Prediction vs Recollection』, (together)(together), Seoul
2023
『Easy Way』, 413BETA, Seoul
2019
『Hello Human?』, Artspace Pool, Seoul
2018
『Yang-Mal-E-P-T』, Tastehous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4
『Dream Screen』, LEEUM, Seoul
2021
『Shadowland』, Amado Art Space, Seoul
2020
『Open-Source Studio』, SeMA NANJI Residency, Seoul
2019
『Latency : Streamlined Times』, Platform-L, Seoul
『Your 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 Doosan Art Center, Seoul
『tart』,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8
『Genre Allegory - The Sculptural』, Total Museum, Seoul
2017
『Final Fantasy』, Hite Collection, Seoul
『Pretty I, Lying in your eyes』, Corner Art Space, Seoul
『Shame on you』, Doosan Gallery New York, NY
2016
『SeMA blue2016 : Seoul Babel』, SaMA, Seoul
2015
『Goods2015』,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2014
『Spell's Spelling』, VanzihaB½F, Seoul

Others

2020
Nanji Artist Residency 14th (Seoul Museum of Art, Seoul)

Dahwan Ghim

Selected works
2017 - 2024

Updated on May.30. 2025.

+82) 10-2280-7199
dahwan.ghim@gmail.com